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본 古典에 관한 研究

김 태 길

(哲學科 教授)

1. 現代 韓國의 文化的 風土와 古典

1. 韓國의 青少年과 讀書傾向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精神的 力量에——價值觀, 상상력, 理解力, 정신 건강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신적 역량에——달려 있다. 그리고,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적 역량을 함양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教育이며, 각급 교육 과정에 있어서 讀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욱 크다.

우리 한국이 현재 매우 중대한 시련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 이 중대한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거니와, 국민의 정신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좋은 책이 많이 읽히는 일 즉 전전한 讀書風土를 가꾸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독서 풍토는 아직도 매우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독서의 양이 적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책에 대한 관심은 프로 야구, 팝송 또는 영화 등 오락에 대한 관심을 밀도는 편이며, 책을 사는 데 쓰는 돈 보다는 술집과 다방 또는 전자 오락실에서 소비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경희대학교 洪起宣 교수 팀이 조사한 “韓國人の 讀書行態”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두 달 이상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인의 경우는 10%가 넘고, 대학생의 경우는 9%가 넘는다. 그리고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평균 기간’은 직장인의 경우가 약 1개월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약 3주일로 나타나 있다. 더우기, 여기서 말하는 ‘책’ 가운데는 주간지와 월간지 그리고 만화 따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책 다음 책을 읽는 일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¹⁾

讀書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量보다도 質이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어떠한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이다.

1) 洪起宣 교수 팀의 「韓國人の 讀書行態」라는 보고서는, 大韓出版文化協會의 위촉을 받고 1980년 7月~11月 사이에 실시한 設問調查에 의거한 것이며, 『出版文化』誌에 1981년 1월호에서부터 3월호까지 3회에 걸쳐서 연재된 바 있다.

내용의 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대 한국인이 어떠한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한 정확한 조사 보고는 필자의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거의 없다. 앞에서 말한 홍기선 교수 팀의 조사 보고에서도 이 점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 조사가 주로 讀書의 外形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비록 정확한 통계의 자료는 없더라도, 우리들은 일상적 관찰을 통해서, 현대의 한국인이 주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 베스트 셀러에 관한 보도, 출판업자들의 증언, 신문 잡지 등의 책 광고 등을 통하여, 독서의 질에 관한 실태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洪起宣 교수 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 읽는 책’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 어느 부류에 있어서나 文學書籍이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고, 다만 ‘최근에 3명 이상이 읽는 책’의 이름이 몇몇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소개된 책의 이름을 보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쓴 당시의 베스트 셀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대중 소설의 번역판 또는 〈三國志〉 따위의 무협 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罪와 罰〉, 〈좁은 門〉 따위의 서양 고전 번역서의 이름이 보인다.

‘문학 서적’에도 여러가지 종류와 등급이 있고 또 같은 문학 서적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다’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그 사회의 讀書의 質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조사 보고서와 그 밖의 일상적 관찰을 종합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추측이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1) 많이 읽히는 문학 서적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소설이며, 소설 가운데서도 무게가 있는 고전보다는 일시적으로 人氣가 높은 책 또는 흥미로운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고등 학생들의 경우에는 古典도 일부 선택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뜻을 깊이 새겨 가며 읽기보다는 이야기 줄 거리를 죄아 가며 결합기로 읽는 경우가 많다. (3)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 비판적 참여 의식이 강한 소설이 많이 읽힌다.

문학 서적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것은 ‘전문 서적과 어학 서적’이다. 홍기선 교수 팀에 의해서 ‘技能物’이라는 이름으로 뮤여진 이 부류의 서적은 入學과 進級 또는 취직과 승진 등의 전제 조건이 되는 시험 내지 실력 양성을 위해서 읽어야 할 책들이다. 요컨대, 사회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세속적 성공을 거두기에 필요한 독서가 문학 서적을 대상으로 삼는 독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홍기선 교수 팀의 보고서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최근 대학생 사회에 현저한 또 하나의 독서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또 하나의 경향이란 어떤 정치 사상과 친근성이 있는 한가지 계통의 사회 과학 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

을 가리킨다. 대학생들은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이 예민한 연령층에 속하므로 사회 현실 속에 발견되는 갖가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 비판적 태도가 현실개조의 의지로 발전할 때, 그들은 자연히 그 현실 개조의 이론적 기반과 전략적 처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이론적 기반과 전략적 처방을 마련하는 마당에서, 경험이 적고 마음이 급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두루 섭렵하고 또 우리 현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한 결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직관적으로 선택한 한 가지 계통의 사상 내지 이념을 전제로 삼고, 그 계통의 서적만을 편파적으로 탐독하는 경향으로 끌리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한국인의 독서 경향 특히 청소년층의 독서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러한 독서 경향의 윤곽을 전제로 삼고, 우리 독서 풍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거듭된 여론이 지적해 왔듯이, 독서의 量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쁜 세상에 왜 반드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우리의 통념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키워야 하거니와, 각자의 정신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體驗과 思索이 풍부해야 하고, 나의 체험과 사색의 폭을 넓히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의 하나가 탁월한 사람들의 체험과 사색의 기록을 주의깊게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독서의 목적을 주로 세속적 실리와 오락에 두고, 인생관의 수립 또는 인격의 도약을 위한 마음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책을 읽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있다. 세속적 실리나 오락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경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실리도 중요하고 오락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며, 실리와 오락을 위한 독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은 더욱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관 수립과 인격 도약의 바탕이 되는 교양을 위해서 읽는 독서는 독서 가운데서도 가장 뜻있는 독서라는 사실이다.

세째로, 대학생 사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계열의 사상적 문헌이 두루 읽히지 않고, 성급하게 선택된 한 가지 계열의 서적만이 편파적으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특수한 계열의 책을 읽는 것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상을 두루 공부하고 그것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현실도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국가의 장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막중한 문제이며, 학생이라는 신분이, 어떤 단

정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널리 배우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기본적이며 광범위한 독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人生設計와 讀書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독서라는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한 나라 전체의 독서 풍토 역시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한 개인이 讀書의 目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 人生設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반드시 의식적으로 명확한 인생 설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각각 막연하게나마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게 마련이며, 독서라는 행위도 그 목적과 계획 여하를 따라서 그 질과 양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일반적 독서 풍토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 성원들의 일반적 인생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인의 독서의 목적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락과 실리이다. 즉,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흥미 위주의 책을 읽는 경우와 자격 시험 또는 경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로서 책을 읽는 경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人格成長의 바탕이 될 教養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는 경우는 비교적 미약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서의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인생 목표에 있어서 일시적 오락과 세속적 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격의 성장 또는自我의 實現이 차지하는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삶에 있어서 오락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세속적 실리를 무시하고는 하루도 살아 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흥미와 오락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시험 합격 따위의 실리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독서 행위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락과 실리를 위한 독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인격 성장의 바탕이 되는 교양을 위한 독서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독서를 위해서 할애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하며 독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체 시간 가운데서 특히 마음의 양식을 위한 독서에 소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인생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순간적 오락과 세속적 실리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설계를 가진 사람들은 오락과 실리를 위해서 독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책을 읽을 것이요, 인격의 성장에 중점을 둔自我의 實現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으로서의 의의가 큰 고전적 양서를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삶을 설계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自由에 속하는 문제이며,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설계만이 절대로 옳다는 주장을 만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 오락 또는 세속적 실리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와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를 비교할 때, 후자가 더 바람직한 설계라는 것을 우리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순간적 오락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순간적 오락 그 자체가 갖는 가치는 그리 큰 것이 아니며,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때 비로소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때 보다 큰 목적이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자아의 실현이요, 사회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集大成으로서의 文化創造이다.

세속적 실리도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手段的 價值로서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다 높은 목적이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이요, 사회적으로는 개인적 자아 실현의 집대성으로서의 문화 창조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순간적 오락도 세속적 실리도 모두 값진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들 자체가 궁극적 가치로서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며, 自我의 實現과 文化의創造라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치에 머무를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다.

세속적 實利는 경쟁성이 강한 목표이다. 세속적 실리의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재산과 권력 또는 지위 등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김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을 상기 할 때, 우리는 세속적 실리의 강한 경쟁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오락도 그것이 고급화하여 향락의 경지에 이르면 강한 경쟁성을 띠게 된다. 오락 내지 향락 그 자체가 반드시 경쟁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고급 오락 시설 또는 유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돈이 강한 경쟁성을 가진 가치인 까닭에 고급화된 향락도 간접적 경쟁성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은 그 본질에 있어서 경쟁성이 강한 목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을 닦고 같아서 각자가 타고난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경쟁에서의 승리를 필수 조건으로 삼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만 하면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심신을 만족스럽게 연마하자면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고, 좋은 교육 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실현도 경쟁성을 내포하는 삶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 실현’이라는 개념은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나 ‘성공’과는 본질이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아 실현의 목표가 가진 경쟁성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님을 곧 알 수 있을 것

이다.

자아의 실현이란 각자가 타고난 소질을 연마하여 그 잠재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일이며, 반드시 이른바 일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가지 계열과 여러 가지 계층의 교육 기관이 있거니와,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 기관을 선택함으로써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설이 모든 국민의 소질을 연마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젊은이가 각자의 적성을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한국이 장기적 계획으로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의 하나이다.

비록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소질을 타고난 젊은이라 하더라도, 학비를 부담할 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주장이 못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과 그 후원 기관에는 상당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뛰어나게 우수한 학생이면 대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그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질과 의지가 있는 젊은이는 누구나 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남은 과제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自我實現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전진한 경쟁의 길로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적은 성질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자아 실현의 목표가 요구하는 경쟁은 세속적 실리의 획득 또는 향락을 위한 경제력의 획득을 목표로 삼을 때에 일어나기 쉬운 치열하고 과도한 경쟁과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

우리가 여기서 삶의 목표가 지닌 경쟁성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 목표가 지닌 경쟁성과 공동체의 발전이 요구하는 협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목표가 강한 경쟁성을 지닐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자면 우리가 함께 뜻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발전해야 하거니와, 우리들 각자가 추구하는 개인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한 경쟁성을 가졌을 때는, 우리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어긋나는 까닭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대국적으로 협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우리는 개인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보다도 자아의 실현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두 가지 지적한 셈이다. 첫째로, 가치론

적 겸지에서 볼 때, 自我實現의 價值를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보다도 한 층 더 높은 가치로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까닭에 그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가치가 지닌 경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자아의 실현이 요구하는 경쟁은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의 달성이 요구하는 경쟁에 비하여 사회적 협동을 파괴할 염려가 큰 까닭에,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인들의 인생 설계와 그에 따르는 독서 경향은 그들이 사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 풍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개인주의의 색채가 놓후한 현대인도 사회적 존재임에는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활 태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를테면,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과 인격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경지 이룬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후자를 더 높이 대접한다면 사람들은 인격의 성장에 중점을 둔 자아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세속적 실리를 획득하는 일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는 경향으로 기운다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에 더 많은 정열을 기울일 것이다. 독서의 경향에 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특히 깊이 있는 교양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당장의 읽는 즐거움보다 장차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의 풍토 하나만을 떼어서 양서 읽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한다 해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치 풍토 전체의 개선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독서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3. 古典 出版과 고전 읽기운동

우리 나라 독서 풍토를 개선하여 좋은 책이 많이 읽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은 별씨 오래된 일이며, 그러한 여론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도 매년 가을이면 〈독서 강조 기간〉 따위를 정하고 여러 언론 기관이 좋은 책 읽기의 계·공에 나서고 있으며, 양서의 저작과 출판을 표창하고 권장하는 出版文化賞의 제도 또는 優良圖書 추천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良書의 기본이 되는 것은 古典이며, 좋은 고전이 많이 읽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찍부터 일어났다. 고전이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고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판단에 입각하여, 고전의 번역과 출판을 앞세우는 움직임이 여기 저기 있었다.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여 많이 읽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입각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그 동안에 실제로 거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노력에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出版과 讀書에 관하여 여러 공공 기관 또는 사설 단체에서 그 동안 전개한 운동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곁으로 표방된 목표가 컸던 데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둔 성과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전 읽기 운동’의 성적이 부진했다는 인상이 짙다.

우선 古典의 選定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인류의 유산을 전부 출판하여 모두 읽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하거니와, 그 選定의 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韓國人을 위한 古典이 선정되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주로 외국의 고전적 작품에 의존하여 世界古典叢書를 발간했거니와, 그 作品選定의 원칙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준다. 작품 하나 하나가 갖는 현대적 의의 특히 그 教育的 價值를 깊이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유명한 것’들을 뽑아 모은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철학 전문가를 위해서는 매우 귀중한 고전이지만, 너무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까닭에,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저술이 교양 도서로서의 고전 총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서 韓國의 古典을 보급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남의 나라의 고전보다도 우리 나라의 고전이 우리에게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견해이며, 우리 자신의 傳統 속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취사 선택과 우선 순위의 기준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 역사 연구가를 위해서라면 우리 나라의 모든 고전이 귀중한 자료로서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족주의적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쓰여진 윤리적 교훈 가운데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것은 우리 조상의 저술이라는 점을 사상한다면 별로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을 간직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韩國의 古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의 옛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큰 의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古典의 翻譯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의 원전은 거의 모두가 외국어 또는 옛말로 쓰여져 있으므로 널리 읽히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거니와, 이 번역의 과정도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번역이라는 知的 作業이 매우 어려운 일인 데 비하여 보수가 박하고 또 업적으로서의 인정도 받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전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도록 탁월한 실력을 가진 문필가가 번역 사업에 종사하기를 원치 않으며, 어떤 사정으로 번역을 맡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전 번역은 일반 서적의 번역보다도 어려운 것이 보통이며,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주석을 붙일 필요가 있는 귀절이 허다하다. 따라서, 고전의 만족스러운 번역을 위해

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거나와, 번역자도 출판 업자도 이 일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출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책임한 번역판 고전을 세상에 내놓는 결과가 되기 쉽다.

번역은 原典에 직접 접해서 해야 한다. 예컨대, Platus의 저서를 번역하자면 회합어 원전을 대본으로 삼아야 하고, Tolstoy의 저술을 번역하자면 노서아어에 능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번역 도서 가운데는 번역서를 대본으로 삼은 重譯이 허다하다. 원전의 뜻을 완전하게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까닭에, 중역으로 이루어진 번역판은 내용에 있어서 원전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고전 읽기 운동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운동이 순수한 문화사업으로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삼은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출판 사업이란 본래 문화 사업을 겸한 營利行爲라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영리를 완전히 외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나라 출판계의 현실이 文化事業과 營利를 양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전으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번역 총서를 발간하자면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하거나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함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고전 번역 총서를 간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경제력을 아울러 가진 업자가 우리 나라에 흔하지 않은 것이다. 고전적 교양서가 많이 읽히는 독서 풍토라면 영리적 동기로도 좋은 교양 도서를 출판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까닭에 업자만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다.²⁾

4. 現代 韓國人을 위한 古典

세상에서 전통적으로 ‘古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술들은 모두 위대한 인간 정신이 남긴 인류의 유산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현대 한국인을 위한 教養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문제로서 세계 각국의 모든 고전을 통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古典들은 대개 속히 읽어 넘겨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며,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깊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内外의 수많은 고전들 가운데서 특히 현대 한국인을 위해서 보배로운 저술들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 한국의 독자를 기준으로 삼은 優先順位에 따르는 古典의 選擇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우선 순위를 비교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選擇의 基準을 정하는 일이다.

첫째로,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는, 현대 한국인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2) 營利의 목적이 없는 순수한 文化事業임을 표방하고 출판한 ‘고전 읽기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안으로 목표하는 바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문제들 또는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성이 깊을수록 優先順位에 있어서 앞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거나와, 이 문제들의 숲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지혜의 일부를 고전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고전일수록 읽는 보람이 큰 고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부딪치는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직접 다룬 저술들만이 우리를 위해서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 또는 사고 방식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은 삶의 지혜에 가득찬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려움에 당면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용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대할 때는 견지해야 할 성실한 태도, 사태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편견 없이 바라보는 공정하고 폭넓은 안목, 또는 일관성 있는 논리를 따라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원만하게 종합할 수 있는思考의能力 등을 길러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고전들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지혜가 담긴 고전에 해당한다.

예컨대, 존재나 인식의 문제를 다룬 철학적 고전들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들을 뜯어 있게 읽는 독자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사리를 구명하는 진지한 태도를 배울 수도 있고, 치밀한 분석의 사고력을 기를 수도 있다. 또 Shakespeare나 Dostoevski의 작품 주인공들이 부딪친 문제들과 현대 한국인이 부딪치는 문제들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저 문호들의 작품을 짚어 이해하고 읽는 독자들은 인간과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을 넓힐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韓國의 傳統文化와의 거리가 가까운 고전일수록 높은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령, 같은 수준의 문학적 가치나 철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세 편의 저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저자가 한국인이고 다른 두 편의 저자는 각각 중국인과 프랑스인이라면, 우리는 한국 고전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주고, 다음은 중국과 프랑스의 순서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文化的傳統에 대한 이해의 주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남의 나라의 전통에 대한 이해보다도 제 나라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古典의 독서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이해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의 기록으로서의 의의가 큰 고전 가운데서도 자기 나라의 고전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고전을 남의 나라의 고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國粹主義나 復古主義의 일환으로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술과 외국의 저술이 동일한 보편적 기준에 의하여 비교될 때 만약 둘이 같은

수준의 세계적 명작으로 인정된다면, 우리 나라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국수주의도 복고주의도 없다. 같은 수준의 두 저술 가운데서 남의 나라의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事大主義의 혐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별로 평가될 만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저술을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나라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높이 추켜세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적 유산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애정이 맹목적 송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세째로,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는, 現代性이 강한 古典에 優先性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대성’이라 함은, 그 저술의 사상적 내용이 현대와 두터운 親近性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에 대한 영향이 큰 정도를 지칭한다. 예전에, 신비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사상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고전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사상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고전이 現代性이 강하다.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형성되었으며, 봉건 사회에나 적합한 윤리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교훈적 고전보다는 市民社會에 적합한 윤리 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교훈적 고전에 더 강한 현대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現代의 古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대의 학자 또는 현대의 작가가 저술한 서적 가운데 古典的 權威가 인정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도 古典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서 마땅할 뿐 아니라, 그 現代性으로 말미암아 우선적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古典이라는 이름에 구애하여 옛날의 서적만을 소중히 여길 이유는 없을 것이며, 다른 점이 같다면 現代의 古典에 優先性를 인정하는 것이 事理에 합당할 것이다.

다만,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고전적 가치를 가진 저술인지에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가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서 歷史的 偉人을 뽑아내는 일이 어렵듯이,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古典을 뽑아내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평론이 크게 활발한 까닭에 어떤 저술의 定評이 형성되기까지에 옛날과 같이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古典叢書의 간행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고전과 현대의 고전을 구분해서 둑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옛날의 고전과 오늘의 고전을 같은 칙도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이다. 옛날의 고전과 오늘의 고전 사이의 우선 순위의 문제는 독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다. 현대 한국 젊은이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자에 중점을 두는 것도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철학, 문학, 역사, 과학 등 여러 분야 가운데서 어떤 분야의 고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인 해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이며, 편집자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가지의 특색이 각각 다른 결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고전을 어느 분야의 저술로 보느냐 하는 것 부터가 편의상의 구분 이상의 것을 혜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분야별 배정의 문제를 과히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의 목적은 사람을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를 수가 있다. 오락을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읽을 수도 있다. 독서의 목적을 따라서, 읽히는 책도 달라질 것이며 읽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슨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락이나 機能的 必要를 위한 독서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人間의 成長을 위한 독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신념이며, 이 人間의 成長을 위해서 읽혀야 할 책들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古典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通念이다.

그러나,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아무 고전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우리들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의 知性的 思考力を 조장하고 건전한 價值觀의 定立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古典을 선택적으로 정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토록 목적에 맞는 독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고전들이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선정된 도서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과 그 번역판을 간행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本研究는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적합한 古典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시론이다. 우리는 韓國에 大學生들을 위해서 특히 우선적으로 권장할 만한 고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世界의 古典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하였다. (1) 韓國의 古典, (2) 東洋의 古典, (3) 西洋의 古典, 韓國의 古典 가운데는 漢文으로 쓰여진 것과 한글로 쓰여진 것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으며, 東洋의 古典 가운데는 中國과 印度의 고전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西洋의 古典 가운데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에서 현대 서구 여러 나라의 고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의 영역을 잡기로 하였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 韓國과 印度의 고전은 주로 沈在龍이 담당하고, 中國의 고전은 金學主가 맡았으며, 西洋의 고전은 朴熙鎮이 담당하되, 공동 연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때때로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본 中國의 古典

金 學 主

(中文科 教授)

內 容

- | | |
|------------------------|----------------------------------|
| 一. 緒 論 | 四. 우리 文化·教育의 觀點에서 選擇한 中
國의 古典 |
| 二. 韓國에 읽히고 있는 中國의 典籍 | 五. 中國 古典 翻譯紹介의 方法 |
| 三. 「新東亞」誌의 「中國古典 100選」 | |

一. 緒 論

우리 나라는 中國과 歷史的·文化的으로 밀접한 관계 아래 발전하여 왔다. 中國을 떼어 버리고는 우리 나라 歷史나 文化를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게 보면 이전에는 中國文化圈 안에 속해 있었다. 그러기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教育의 資料는 모두 中國글로 이루어진 中國의 文獻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先人們의 教養의 바탕이 되어온 것이 中國 文獻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文化全般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옛날부터 中國의 典籍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책들 보다도 널리 읽히고 존중되어 왔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中國의 典籍들이 우리 말로 譯解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러나 中國文化를一方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옛날과는 時代的 狀況이 지금은 크게 달라져 있다. 이제는 自主的인 教育을 발판으로 하여 참된 우리 文化를 건설해야만 할 시기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先人們에게 영향을 주어온 中國의 典籍들을 하루 아침에 폐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읽혀온 中國의 典籍들을 檢討하고 批評하여 우리가 읽어야만 할 古典들을 定立하여야만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小論은 이를 위한 基礎作業으로서의 뜻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이 作業은 特히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힘이 주어질 것이다.

첫째 : 현재 우리 나라에는 中國의 典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많이 읽히고 있는가? 여러 出版社에서 翻譯出版된 思想全集과 文庫本을 中心으로 實態를 把握한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읽혔는가? 韓國에서 읽혀진 中國 典籍들은 어떤 特徵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中國 典籍의 翻譯紹介는 選擇이나 翻譯이 適切한 것이었는가? 따위의 問題들을 아울러 檢討해 볼 것이다.

둘째 : 中國의 典籍들은 거의 모두가 지난 封建時代의 產物이어서, 그것들을 現代社會에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紹介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問題들이 있다. 內容上 또는 形式上 이것들은 어떤 問題들을 안고 있는가 檢討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째 : 이리한 中國의 典籍들은 우리나라의 文化와 教育에 있어 어떤 意義를 지니는 것인가? 특히 自主的인 文化와 올바른 教育을 위한 古典을 定立하는데 있어 이들이 지니는 意義가 考究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中國의 古典이 選擇되어야 할 것이다. 古典을 통한 教育이 올바른 判斷能力과 建全한 思考를 바탕으로 하는 現代사회가 要求하는 教養人 또는 知性의 養成에 목적이 있다며는, 과거에 있어서의 우리 文化에의 寄與度 보다도 앞으로의 意義가 더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 끝으로 이렇게 選擇된 古典들을 어떻게 번역 소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選擇된 典籍 別로 간단히 檢討될 것이다.

이 作業의 目的은 中國의 옛 典籍들을 우리 나라에 살리어 새로운 教育의 發展과 文化的建設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에 따라 典籍에 대한 견해를 크게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 적어도 中國의 古典을 우리 나라에 定着시키는 기초작업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二. 韓國에 읽히고 있는 中國의 典籍

우리 나라에는 大洋·徽文·三省 등의 출판사에서 「世界思想全集」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지 않은 中國의 典籍들이 끼어 있다. 여기에는 모두 儒家의 經傳들과 諸子書를 為主로 한 思想關係 典籍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모두 儒家의 經典 중에서도 「論語」·「孟子」는 넣으면서도 이른바 〈三經〉인 「詩經」·「書經」·「易經」은 除外되고 있는 점이 크게 눈에 띠인다. 따라서 〈五經〉 속에 들어가는 「禮記」·「春秋」가 除外되고 있음은 물론이다.大洋出版社에서는 「論語」·「孟子」 이외에도 宋代의 「近思錄」·明代 王陽明의 「傳習錄」도 넣고 있고, 徽文出版社의 경우에는 漢代 賈誼의 「新書」나 莊仲舒의 「春秋繁露」 등도 넣고 있으면서, 儒家經典의 中心을 이루는 〈王經〉 또는 〈五經〉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쉽사리 納得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李朝에 盛行한 性理學의 그릇된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거기에 비하여 「荀子」·「老子」·「莊子」·「墨子」·「韓非子」 등 대표적인 諸子書들은 모두 들어있다. 이 밖에 「呂氏春秋」·「淮南子」·「抱朴子」 등도 中國思想을 대표하는 책들로서 선택한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아무래도 思想全集은 思想을 為主로 고른 책들이 모아져 있음으로 古典이란 입장에서 본다면는 傷向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도 좀 더 넓은 범위의 책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 出版社에서 낸 文庫本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三省文化財團의 三省文庫를 비롯하여 乙酉文庫·瑞文堂文庫·博英文庫·明文堂新書·三中堂文庫·培英社新書 등에 적지 않은 中國의 책들이 選譯되어 있다. 그 중에

서도 乙酉·瑞文堂·博英·正音社 등에 가장 많은 中國 책들이 들어있다.

이들을 綜合해 보면 中國의 典籍 중 「論語」·「孟子」는 三省을 除外한 全 文庫 속에 다 들어있고, 「大學」·「中庸」은 다시 三中堂과 博英社를 除外한 다른 文庫 속에 다 들어있다. 따라서 中國의 典籍들 중 이른바 〈四書〉가 思想面에서 가장 重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儒家의 經典으로는 「詩經」이 乙酉·正音社·瑞文堂에서 나왔고, 「書經」이 乙酉·瑞文堂에서, 「易經」이 瑞文堂에서 나와 있다. 이 밖에 乙酉에 「孝經」, 三星에 「左傳選」, 培英社에 「小學」따위가 눈에 띠었다. 諸子書로는 「老子」와 「莊子」가 각각 두 곳 文庫 속에 발견되었고, 특히 「孫子兵法」은 세 곳에서 나와 있어 그 人氣度를 짐작케 한다. 正音社에는 「六韜三略」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兵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듯 하다.

史書로는 三星에 「史記列傳」과 博英에 「十八史略」정도가 눈에 뜨일 뿐이다. 中國의 史書들은 어느 時代의 歷史를 막론하고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에게 소개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인듯 하다.

文學作品으로는 「唐詩選」(三星·正音·乙酉), 「李白詩選」(乙酉·三中堂·瑞文), 「杜甫詩選」(正音·乙酉)의 세 가지가 두드러지며, 「古詩十九首」(瑞文) 같은例外도 있기는 하다. 小說로는 四大奇書 중에서도 「三國志」(博英·三中堂·瑞文)가 가장 널리 읽히는듯 하며, 瑞文에 「水滸傳」·「西遊記」가 들어 있으나 「金瓶梅」는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도 小說로는 「紅樓夢」(瑞文)·「聊齋志異」(乙酉)·「唐代小說」(乙酉) 등이 눈에 뜨인다. 散文으로 「唐宋八家文」(博英)·「中國歷代隨筆選」(乙酉)이 있고, 그 밖에도 「考槃餘事」(乙酉)·「林語堂隨想錄」(乙酉)·「三民主義」(三省)·「胡適文選」(三省)·「明夷待訪錄」(三省) 등이 보인다. 당시 乙酉에는 「千字文」·「中國新文學講話」·「朱子行狀」·「四十自述」 등이 있고, 三星에는 「中國古典入門」, 正音社에는 「中國民譚選」·「中國文化史概論」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叢書 이외에도 「四書」는 무려 6,7個 出版하고 있고, 「三國志」도 그 정도이니 中國 典籍 중에서 가장 우리 나라에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임을 알겠다. 이 밖에는 「唐詩選」을 비롯한 中國의 「古詩選集」 및 李白·杜甫·白居易 등 代表的 作家들의 詩選集과 小說로는 「水滸傳」·「西遊記」·「老殘遊記」등이 몇몇 出版社에 의하여 出刊되었다. 現代作家로는 魯迅의 作品이 가장 많이 紹介되었고, 그 밖에는 老舍·矛盾·巴金의 一部가 번역되었다. 이에 의하면 中國의 典籍은 先秦의 經子와 함께 後世의 文學作品들이 選好度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은 어떤 一定한 基準으로 選擇된 것이 아니라, 出版社와 譯者의 취향에 따라 적당히 選擇되어 번역 紹介된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나라 讀者層 및 文化界的 要請도 어느 정도反映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두세번 이상 번역 出版된 책이라며는一般的으로 우리 나라에서 重視되고 있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 典籍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書目을 들면 아래와 같다.

儒家經典；「論語」**・「孟子」**・「大學」**・「中庸」**・「易經」*・「書經」*・「詩經」**・「禮記」・「左傳」・「孝經」*.

諸子書；「老子」**・「莊子」**・「列子」**・「墨子」**・「荀子」**・「韓非子」**・「孫子」**.

文學；「楚辭」*・「唐詩選」**・「陶淵明」・「李白」*・「杜甫」*・「白居易」・「三國志」**・「水滸傳」*・「西遊記」*・「金瓶梅」・「聊齋志異」・「紅樓夢」・「魯迅集」**.

歷史；「史記列傳」*・「十八史略」・「戰國策」.

其他；朱熹・呂祖謙「近思錄」・王陽明「傳習錄」・孫文「三民主義」*.

**—6, 7차의 出版社에서 出版.

*—4, 5차의 出版社에 出版.

무표시—2, 3차의 出版社에서 出版.

但 이상은 몇 개의 書店調査와 出版專門人의 意見을 종합한 不正確한 調査에 따른 것이다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임.

三. 「新東亞」誌의 「中國의 古典 100選」

1980年 1月에 「新東亞」誌는 “中國과 中國의 文化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100권의 책”(別冊 附錄 머릿말)을 中國의 歷代 典籍 중에서 選定 解說하여 別冊附錄으로 「中國의 古典 100選」이란 題下에 펴낸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中國文學을 專攻한 學者 세 분, 中國哲學者 세 분, 中國史學者 두 분, 都合 여덟 분이 選考委員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각分野의 專門家들이 한두권의 책을 맡아 解說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典籍을 <古典>이란 입장에서 意識的으로 폴라본 代表의인 보기일 것이다.

여기에 보면 100종의 古典은 文學篇 31종, 歷史篇 26종, 哲學篇 30종, 藝術篇 8종, 科學篇 5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각 分野의 책들을 골고루 가려 뽑은 셈이다. 그리고 끝머리에는 選考委員들이 추천은 했으나 100종 속에는 들지 못한 「推薦書目一覽」이 있는데, 여기에는 文學篇 32종, 歷史篇 21종, 哲學篇 30종, 藝術篇 13종, 科學篇 9종이 들어있다. 결국 中國의 典籍 중에서 100종의 古典을 가려뽑는다면 대체로 이들 범위 안에서 落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 뽑아놓은 책들을 보더라도 古典으로 읽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인다. 이것들이 “中國과 中國文化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體裁나 內容이 現代的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엉성하고 雜多한 것들이 大部分이다. 먼저 100종의 古典에서 文學篇을 보기로 하자. 文學篇 31종은 다시 크게 나누어 보면 作家들의 個人文集이 6종, 詩文選集이 6종, 小說類가 9종, 戲曲類가 4종, 其他가 6종이다. 個人文集은 陶淵明・李白・杜甫・韓愈・柳宗元・蘇軾의 6명인데, 첫째 中國歷代의 文人 중에서 이 6명의 文集 만이 뽑혀진 이유도 애매하거나의 詩・散文 뿐만이 아니라 上疏文・편지・碑文 등 生前에 그 사람이 쓴 모든 종류의 글이 다 모아져 있는 이 文

集을 현대인에게 强要하는 것은 무리일듯 하다. 詩歌選集 6종도 中國文學을 공부하는 데에는 꼭 보아야만 할 책들이지마는, 그 내용이 모두 너무나 龐大하다. 「文選」은 六朝 이전의 賦·詩·散文 등 各種의 美文을 모두 골라놓은 60卷에 이르는 책이며, 「古文辭類纂」은 論辨·序跋·奏議·書說·贊序·詔令·辭賦 등 13종의 歷代 古文을 모아놓은 74卷에 이르는 散文選集이다. 「詩經」·「楚辭」·「玉臺新詠」·「瀛奎律髓」등도 모두 外國人이 읽을 古典으로서 完帙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고려해야할 일일듯 하다. 그리고 여기에 小說類가 9종이나 들어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있으며, 더구나 「三言兩拍」은 5종의 小說集이고, 「四大奇書」는 4종의 長篇小說이니, 실제로는 8종의 短篇 내지 中篇小說集과 8종의 長篇小說이 되는 것이다. 戲曲의 분량도 4종이자지만 적지 않다. 「西廂記」와 「琵琶記」는 각各 한篇의 작품이지마는 「元曲選」에는 100篇의 元代 雜劇이 실려있고, 「玉茗堂四夢記」는 4종의 明代 湯顯祖의 傳奇作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들이 中國의 古劇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고른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其他 6종중에서 「文心雕龍」을 제외한 남아지 것들은 모두 具體的인 內容을 적은 著述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說文解字」는 分서 字典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疆郵叢書」는 詞에 관한 歷代의 著述 또는 詞集 등 10餘種의 著述을 모아놓은 叢書이고, 「太平廣記」는 500卷을 넘는 百科全書 성질의 책이며, 「歷代詩話」는 中國 歷代의 詩에 관한 雜多한 얘기들을 적어놓은 〈詩話〉라는 著述 50餘종(「續歷代詩話」포함)을 모아놓은 역시 叢集 성격의 책이다. 「朱子語類」는 朱熹의 門人이나 弟子들이 筆錄한 스승의 語錄으로 여러 차례의 增補를 거쳐 이룩된 140卷에 이르는 大著로, 그의 理氣·性理 등에 관한 얘기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經典·歷史·學問 등에 관한 雜多한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따라서 이것도 古典으로서 일반 知識인들이 읽기에는 不適合한 것이다.

歷史篇에 들어있는 26종의 책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본격적으로 中國歷史를 기술한 책은 「史記」·「漢書」·「三國志」·「資治通鑑」인데, 각각 130, 120, 65, 294卷이나 되는 大著이고 내용도 本紀·書·表·世家·列傳 등 多樣하여 보통사람이 通讀하기에는 問題가 있다. 또 「困學紀聞」·「日知錄」·「文史通義」·「孔子改制考」 같은 책들은 歷史뿐만이 아니라 中國學問 全般에 관계되는 著述이며, 특히 앞의 두 가지는 著者들의 學問 노트나 같은 性格의 각 분야에 걸친 雜多한 論述이다.

이 밖에 中國 歷代의 制度史인 「通典」이나 漢代 經濟論인 「鹽鐵論」, 地理關係 책인 「水經注」·「大唐西域記」·「讀史方輿紀要」·「高麗圖經」·「海國圖志」·「蒙古遊牧記」 등 모두 特수한 專門知識이나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特別한 관심 없이는 읽기 어려운 책들이다. 「史通」·「藏書」·「讀通鑑論」·「廿二史劄記」 등 史論을 쓴 책들도 中國歷史에 대한 상당한 知識을前提로 하여야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다. 오히려 政論에 가까운 「貞觀政要」나 「明夷待訪錄」이 내용도 구체적이고 체계도 어느 정도 서 있어 일반 지식인들이 읽기에 좋을듯하다.

이 밖에 가장 古典다운 성격을 많이 지닌 책들이 哲學篇에 들어있는 30종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中國思想을 대표하는 책들이냐 하는 점에도 여러가지 異見이 있을 수 있다. 특히 「天演論」은 中國의 책이 아니니 말할 것도 없고, 其他 「肇論」·「臨濟錄」·「天台四教儀」·「碧巖錄」 등 佛教에 관한 著述들이 佛教思想을 대표하는 책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道教에 관한 「雲笈七籤」도 그 전부를 일반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다, 儒學史上의 「困知記」·「原善」·「大同書」·「仁學」 등의 위치는 보는 입장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개다가 中國의 先秦 典籍들은 오랜 歲月을 통하여 높은 評價를 받아온 책들, 곧 儒家의 經傳이나 諸子書과 할지라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 책의 真實性, 곧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책의 著者나 時代에 대하여 모두 적지 않은 疑問이 있고, 둘째는 그 책의 채재나 내용에도 哲學的인 著述로서는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易經」이나 「書經」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은 十翼을 孔子가 지운 것이라 믿고 있는 학자는 거의 없으며, 虞夏書나 商書는 周書의 일부분 보다도 오히려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는 학자들이 더 많은 정도이다. 「管子」나 「列子」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책은 후세 사람들의 僞託일 가능성성이 많은 것들이며, 그 밖에 「論語」·「孟子」를 비롯하여 「莊子」·「墨子」·「荀子」 등 모든 諸子書들에는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모든 책들에 가짜 成分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용을 보더라도 「易經」은 본시 짐 책이어서 그 기본을 이루는 64卦와 卦辭·爻辭 등 자체가 具體的인 思想이나 事物에 대한敘述은 발견할 수 없기니와,一贯된 체계나 論理도 찾아보기 어렵다. 「書經」은 옛 史官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라 하는데, 각 편이 모두 독립된 서로 연관이 많지 않은 내용들이다. 「老子」나 「論語」는 모두 앞뒤의 글과 관련이 거의 없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禮記」도 여러가지 雜多한 記錄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밖에 藝術篇과 科學篇에 들어있는 책들은 觀點에 따라서는 모두가 古典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문제되는 典籍들이다. 이상의 간단한 검토를 통해서도 中國에는 옛날부터 수 많은 典籍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온 책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古典으로 현대에 읽도록 하려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中國의 典籍들 중에서 어떤 책을 古典으로 선택하느냐는 문제도 쉽지 않지만, 또 그 선택된 책들을 어떻게 번역하여 읽도록 하겠느냐는 문제도 간단치 않음을 뜻한다.

四. 우리 文化·敎育의 觀點에서 選擇한 中國의 古典

新東亞의 「中國의 古典 100選」은 지금 中國의 典籍 중에서 古典을 가려낼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누가 다시 고른다 하더라도 이 100種의 책과 그 附錄인 「推薦書目一覽」

의 105種의 책의 범위에서 빼어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이 밖에 中國 사람들은 스스로 뽑아놓은 中高等學生 또는 一般人을 위한 國學에 관한 必讀書目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中國人 스스로 뽑아 놓은 必讀書目의例를 아래에 들어본다

〔例一：梁啓超〕

1) 最低限度의 必讀書目

1. 四書
2. 易經
3. 詩經
4. 書經
5. 禮記
6. 左傳
7. 老子
8. 墨子
9. 莊子
10. 荀子
11. 韓非子
12. 戰國策
13. 史記
14. 漢書
15. 後漢書
16. 三國志
17. 資治通鑑(孝文通鑑紀事本末)
18. 宋元明史紀事本末
19. 楚辭
20. 文選
21. 李太白集
22. 杜工部集
23. 柳河東集
24. 白香山集
25. 其他詞曲集(數種을 選讀)

2) 國學入門書要目

〈修養應用及思想史關係書類〉

1. 論語
2. 孟子
3. 易經
4. 禮記
5. 老子
6. 墨子
7. 莊子
8. 荀子
9. 尹文子
10. 慎子
11. 公孫龍子
12. 韓非子
13. 管子
14. 呂氏春秋
15. 淮南子
16. 春秋繁露
17. 鹽鐵論
18. 論衡
19. 抱朴子
20. 列子
21. 近思錄
22. 朱子年譜附朱子論學要語
23. 傳習錄
24. 明儒學案
25. 宋元學案
26. 日知錄
27. 亭林文集
28. 明夷待訪錄
29. 思問錄
30. 顏氏學記
31. 東原集
32. 駒搃樓集
33. 文史通義
34. 大同書
35. 國故論衡
36. 東西文化及其哲學(梁漱溟著)
37. 中國哲學史大綱 上卷(胡適著)
38. 先秦政治思想史(梁啓超著)
39. 清代學術概論(梁啓超著)

〈政治史及其他文獻學書類〉

1. 尚書
2. 邪周書
3. 竹書紀年
4. 國語
5. 春秋左氏傳
6. 戰國策
7. 周禮
8. 考信錄
9. 資治通鑑
10. 續資治通鑑
11. 文獻通考
12. 續文獻通考
13. 皇朝文獻通考
14. 通志 二十略
15. 二十四史
16. 二十二史劄記
17. 聖武記
18. 國朝先正史略
19. 讀史方輿紀要
20. 史通
21. 中國歷史研究法(梁啓超著)

〈韻文書類〉

1. 詩經
2. 楚辭
3. 文選
4. 集府詩集
5. 曹子建詩
6. 阮嗣宗詩
7. 陶淵明詩
8. 謝康樂詩
9. 鮑明遠詩
10. 謝玄暉詩
11. 李太白集
12. 杜工部集
13. 王右丞集
14. 孟襄陽集
15. 韋蘇州集
16. 高常侍集
17. 韓昌黎集
18. 柳河東集
19. 白香山集
20. 李義山集
21. 王臨川集
22. 蘇東坡集
23. 元遺山集
24. 陸放翁集
25. 唐百家詩選
26. 宋詩鈔
27. 清真詞(周美成)
18. 醉翁琴趣(歐陽修)
19. 東坡樂府(蘇軾)
20. 屯田集(柳永)
21. 淮海詞(秦觀)
22. 楊柳歌(朱敦儒)
23. 稼軒詞(辛棄疾)
24. 後村詞(劉克莊)
25. 白石道人歌曲(姜夔)
26. 碧山詞(王沂孫)
27. 萬葉詞(吳文英)
28. 西廂記
29. 琵琶記
30. 牡丹亭
31. 桃花扇
32. 長生殿

〈小學書及文法書類〉

1. 說文解字注(段玉裁)
2. 說文通訓定聲(朱駿聲)
3. 說文釋例(王筠)
4. 經傳釋詞(王引之)
5. 古書疑義舉例(俞樾)
6. 文通(馬建忠)
7. 經籍纂詁(阮元)

〈隨意涉覽書類〉

1. 四庫全書總目提要
2. 世說新語
3. 水經注
4. 文心雕龍
5. 大唐三藏慈恩法師傳
6. 徐霞客遊記
7. 夢溪筆談
8. 困學紀聞
9. 通藝錄
10. 癸巳類稿
11. 東塾讀書記
12. 庸盦筆記
13. 張太岳集
14. 王心齋先生全書
15. 朱舜水遺集
16. 李恕谷文集
17. 鮚琦亭集
18. 潛研堂集
19. 述學
20. 洪北江集
21. 定盦文集
22. 曾文正公全集
23. 胡文忠公集
24. 茗溪漁隱叢話
25. 詞苑叢談
26. 語石
27. 書林清話
28. 廣藝

舟雙楫 29. 劇說 30. 宋元戲曲史(王國維)

(이상 「國學研讀法三種」臺灣中華書局刊 所載)

〔例二：胡適〕

1) 中學國故叢書

1. 詩經
2. 左傳
3. 戰國策
4. 老子
5. 論語
6. 墨子
7. 莊子
8. 孟子
9. 荀子
10. 韓非子
11. 楚辭
12. 史記
13. 淮南子
14. 漢書
15. 論衡
16. 陶潛
17. 杜甫
18. 李白
19. 白居易
20. 韓愈
21. 柳宗元
22. 歐陽修
23. 王安石
24. 朱熹
25. 陸游
26. 楊萬里
27. 辛棄疾
28. 馬致遠
29. 關漢卿
30. 元曲選
31. 明曲選

(再論 中學的 國文教授(「胡適文存」卷2)에 보임)

〔例三：屈萬里〕

1) 初學必讀古籍簡目

〈經部〉

1. 論語
2. 孟子
3. 周易
4. 尚書
5. 詩經
6. 周禮
7. 禮記
8. 春秋左傳
9. 孝經
10. 爾雅
11. 說文解字
12. 經學歷史

〈史部〉

1. 史記
2. 漢書
3. 後漢書
4. 三國志
5. 資治通鑑
6. 續資治通鑑
7. 明史紀事本末
8. 國語
9. 戰國策
10. 宋元學案
11. 明儒學案
12. 考信錄

〈子部〉

1. 荀子
2. 韓非子
3. 墨子
4. 呂氏春秋
5. 老子
6. 列子
7. 莊子

〈集部〉

1. 楚辭
2. 陶淵明集
3. 李太白詩集
4. 杜工部集
5. 韓昌黎集
6. 白氏長慶集
7. 文選
8. 文心雕龍

(「古籍導讀」臺灣開明書局刊 所載)

이상과 같은 資料들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文化와 Education의 觀點에서 古典을 고른다 하더라도 이들 資料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을듯 하다. 지난 날에 우리 文化나 Education에 어떤 책들이 큰 영향을 끼쳤느냐는 문제는過去 우리 先人們에게 읽히고 重視된 책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客觀的인 選擇이 가능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책들의 내용을 우리 文化나 Education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나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梁啟超가 選定한 〈最低限度의 必讀書目〉과 胡適이 選定한 〈中學國故叢書〉 및 屈萬里의 〈初學必讀古籍簡目〉은 中國의 典籍 중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古典을 고르는데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胡適도 〈最低限度之國學書目〉이라 하여 190種의 책을 選定한 것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너무나繁多하여 여기에서는 소개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文化와 Education의 觀點을 살리는 基準으로는 막연한 感이 없지 않으나, 文化面에서는 되도록 여유있는 東洋的인 人間本位의 傾向을 重視하고, Education面에서는 知識과 아울러 倫理를 強調하던 傾向을 重視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뚜렷한 指標 없이 物質萬能의 傾向으로만 치달아 우리의 性格을 잃어가고 있는 自主的인 우리 文化를 建設하고, 民主社會가 요구하는 良識을 지닌 知識人을 Education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分野는 文學·哲學·社會科學으로 区分

하기로 한다.

〈文學〉

1. 詩經
2. 楚辭
3. 古詩選集
4. 唐詩選集
5. 宋詩選集
6. 詞選
7. 歷代短篇選
8. 三國志
9. 水滸傳
10. 西遊記
11. 紅樓夢
12. 元雜劇選
13. 牡丹亭記
14. 桃花扇

〈哲學〉

1. 論語
2. 孟子
3. 大學
4. 中庸
5. 荀子
6. 老子
7. 莊子
8. 列子
9. 墨子
10. 韓非子
11. 孫子
12. 朱子文選
13. 傳習錄
14. 抱朴子

〈社會〉

1. 書經
2. 左傳
3. 戰國策
4. 史記
5. 明夷待訪錄
6. 大同書
7. 三民主義
8. 天工開物

五. 中國 古典 翻譯 紹介의 方法

옛부터 우리 先人們은 中國文字를 사용하여 왔고, 지금까지도 漢字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말은 漢字語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고, 中國 典籍들이 우리 文化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中國 古典의 紹介 翻譯은 다른 外國의 것과 方法을 달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中國 사람들은 옛 날부터 人間의 理性이나 論理를 그다지 重視하지 않는 傾向이 있어서 이들 古典의 內容이나 體系에는 한 권의 책으로써 적지 않은 問題들이 담기어 있고, 또 그 大部分이 옛 封建社會의 產物이기 때문에 이들의 翻譯 紹介는 西洋 典籍들의 翻譯과는 그 성격이 달라지는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먼저 中國의 古典 紹介 翻譯에 걸친 全體的인 方法을 論述하고, 다시 각 古典의 特徵에 따른 方法을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全體에 관계되는 方法으로는

첫째 ; 各 古典의 性格이나 또는 學術史的 文學史的 價值 등에 대하여 자세한 解說을 하여야만 한다.

둘째 ; 「大學」·「中庸」이나 「老子」·「列子」·「孫子」 등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어느 정도 體系가 서 있는 책을 제외하고는, 앞의 解說에서 強調한 古典으로써의 價值에 따라 그 내용을 譯者 스스로 다시 體系化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여야 한다.

세째 ; 譯文은 完全히 現代化하여야 하며, 옛날 사람들의 漢文套의 譯語는 피해야 한다.

네째 ; 漢文은 아직도 우리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小說을 제외한 中國의 古典翻譯은 모두 原文을 실어 譯文과 對照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漢文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면 쉬운 곳은 직접 原文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 이들 譯文은 原文과의 對照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現代語이면서도 原文의 語順에 가깝도록 翻譯하여야 한다.

여섯째 ; 小說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原文을 근거로한 되도록 친절하고 자세한 注釋을 달아 독자들이 原文의 性格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 原文의 解釋은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說이 있음으로 問題가 있는 곳은 모두 注釋을 통하여 翻譯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덟째 ; 詩를 제외한 다른 책들의 文章은 한 篇의 길이가 너무 긴 것들이 예부분임으로, 그 내용에 따라 譯者는 다시 작은 단락을 지어가며 번역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각 古典에 따른 번역상의 留意할 事項들을 提示코자 한다.

〈文 學〉

1. 詩經～西周 初葉(B.C. 11세기)부터 春秋 中期(B.C. 7세기)에 이르는 약 500年 사이에 유행 하던 詩歌를 모아놓은 中國 最古의 詩歌集. 中國文學의 鼻祖이며 儒家의 經典으로 존중되고 널리 읽혀, 中國 뿐만 아니라 우리 文化에도 至大한 영향을 끼쳐왔다. 다만 여기에는 305篇의 詩歌가 실려 있는데, 현대인이 읽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 형식적인 작품도 적지 않음으로 民歌인 國風을 중심으로 하여 빼어난 작품 만을 選譯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글이라 難解한 句節이 많음으로 「毛詩正義」·「詩集傳」을 비롯하여 현대에 이르는 많은 학자들의 注釋과 研究를 參照하여야만 할 것이다.

2. 楚辭～戰國時代 屈原이 創始한 세로운 詩歌에서 비롯되었다 하나,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楚辭」에는 屈原 뿐만 아니라 宋玉을 비롯하여 漢代의 賈誼·淮南小山·東方朔·嚴忌·王粲·劉向과 심지어 後漢 王逸의 작품까지 합쳐 17篇이 실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 離騷를 비롯한 대표작 만을 골라 翻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漢賦와의 관계도 解說을 통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古詩選集～漢代 樂府詩·古詩에서 비롯하여, 魏晉南北朝에 나온 代表的인 詩人們의 작품과 民歌를 選譯한다. 여기에서는 近體詩가 나오기 이전의 中國詩歌의 發展相과 그 特徵을 분명히 들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唐詩選集～中國詩가 最高度로 발전했던 唐代의 詩歌들을 選譯한다. 아무래도 李白·杜甫·白居易 등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強調되어야 할것이며, 古體에서 近體에 이르는 中國의 各種 詩體도 一目瞭然하게 망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宋詩選集～唐詩와는 또다른 品格의 詩를 發展시킨 宋代 여러 작가들의 作品을 選譯한다. 中國詩와 性理學과의 관계 및 古文과 詞를 發展시켰던 宋代文學의 特徵을 아울러 理解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6. 詞選～詞는 中唐 무렵에 이루어져 晚唐·五代를 거쳐 宋代에 極盛을 이루었던 새로운 形式의 詩歌이다. 唐·五代의 작가에서 시작하여 宋代 작가들의 作品을 가려 翻譯하되, 詞의 風格과 形式의 발전도 아울러 理解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譯者の 趣向에

따라 元·明·清의 작가들도 약간 參與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歷代短篇選~唐代 傳奇, 宋代 話本과 明清代의 文言小說 중 代表的인 작품들을 選譯한다. 譯者의 趣向에 따라 志怪 같은데서도 약간을 選譯할 수 있을 것이다. 小說은 原文을 對照시킬 필요가 없으나 중간에 흔히 引用되는 詩歌들은 原文을 記入해줄 필요가 있다.

8. 三國志~우리 나라에 옛부터 가장 널리 읽혀진 明代에 이룩된 演義小說이다. 明弘治年間에 나온 240回本이 原作者인 羅貫中의 작품에 비교적 가까운 版本일 것이다, 文章이나 內容으로 보아 清代毛宗崑이 增刪評點한 120回本을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三國志가 出版되었으나 標皆가 日語版의 重譯인듯 하다. 小說도 學究의in 韓譯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9. 水滸傳~明代 施耐庵이 지었다는 演義小說. 이 小說에는 여러가지 版本이 있으나 原本은 볼 수가 없고, 가장 얘기가 完備된 것은 明代楊定見이 刻印한 120回本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登場人物들이 거의 모두가 犯罪者들임으로, 이를 약간 감안한 清代金聖歎이 批點한 71回의 第五才子書水滸傳을 韓譯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 西遊記~역시 明代 吳承恩이 지었다는 演義小說. 「三國志」·「水滸傳」이나 마찬가지로 孫悟空의 얘기는 이전부터도 中國民間에 널리 流行했던 것이다. 여러가지 版本이 있으나 最近作家出版社에서 明世德堂本을 바탕으로 하고 清代「西游記評註」·「西游真詮」·「新說西游記」등 여섯가지 版本을 參照하여 校訂增補하여 出版한 것이 가장 좋은 底本이 될 것이다.

11. 紅樓夢~清代 曹雪芹의 작품으로 沒落해가는 大族을 중심으로 하여 그 시대의 社會相과 人間相을 그런 장편소설로 一名「石頭記」또는「金玉緣」이라고도 한다. 보통 120回本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데, 앞 80回 만이 曹雪芹이 지은 것이고 뒤 40回는 高鶚이란 사람의 繢作한 것이라 한다. 그 때문에 뒤 40回는 앞 80回와一致되지 않는 부분조차 있다. 따라서 脂硯齋評 80回本「紅樓夢」이 가장 早期의 版本일 것이다 일반 讀者를 위하여 최근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여러가지 版本을 參考하여 注釋과 校訂을 加하여 새로 펴낸 것이 가장 좋을듯 하다.

12. 元雜劇選~關漢卿·馬致遠·白樸 등 元代의 代表의in 雜劇作家의 작품을 選定 韓譯한다. 다만 이 책의 解說에서는 雜劇의 歷史와 그 特徵·構成 등이 자세히 論述되어야 할 것이며, 注釋도 本文의 解釋 뿐만이 아니라 劇의 演出方法이나 登場人物의 性格과 使用 音樂 등에 대하여서 까지도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牡丹亭記~明代 湯顯祖의 작품으로 一明「還魂記」라고도 하며 모두 55齣에 이르는 長篇劇曲으로, 明代 傳奇의 代表作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여기의 解說에서는 傳奇의 發展過程과 特徵을 論述하여야 할것이며, 앞의 元 雜劇과의 比較는 中國古劇의 理解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14. 桃花扇～清代 孔尚任이 지은 40齣으로 이루어진 傳奇로, 「長生殿」과 함께 清代 戲曲의 代表作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梁啓超·王季思 등의 注本이 나와있어, 작품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의 解說에서는 지금까지도 中國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京戲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花部戲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상세한 論述이 있어야 할 것이다.

〈哲 學〉

1. 論語～孔子와 孔子의 弟子들의 言行을 記錄한 책으로, 宋代 이후로는 儒家의 經典 중 가장 重視되고 또 가장 널리 읽혀왔다. 모두 20篇이며, 각篇이 다시 여러 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章과 章 또는 각篇과篇들은 모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지금 보이는 陳腐한 言動도 있음으로, 選譯을 해도 좋을 것이다. 或孔子의 思想에 따라 內容을 몇 가지로 나누고, 譯者 스스로 體系를 세워 내용을 再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孟子～孟子와 그의 弟子의 合作이라 생각되나, 「四書」의 하나로 널리 읽혀왔다. 모두 7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諸子書 중에서도 그 文章이 뛰어난다. 이 책도 분량이 적지 않음으로 孟子의 特徵을 잘 나타내는 부분 만을 골라 翻譯해도 좋을 것이다.

3. 大學～「大學」은 본시 「禮記」49편중의 第42편이었으나, 宋代 朱熹가 獨立시켜 「四書」의 하나로 定해 놓은 이래 특히 존중되고 널리 읽혀왔다. 朱熹의 「大學章句」本은 獨斷的인 면도 없지 않으나, 그 나름대로 내용을 體系化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禮記」보다는 「大學章句」를 翻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中庸～「大學」과 함께 「禮記」중의 한 편이었던 것을 朱熹가 「四書」의 하나로 책정한 것이다. 「中庸」은 현실주의적인 孔子의 가르침과는 달리 哲學的인 내용을 論述한 것이어서 儒家思想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책이다. 이것 역시 朱熹가 體系의인 解說을 폐하고 있음으로 翻譯은 朱熹의 「中庸章句」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荀子～戰國 末葉 荀卿의 著述로 32편의 글이 실려 있다. 보통 儒家에 속하는思想家로 性惡說의 主唱者라 알려져 있으나, 그의 時代의인 認識은 法家思想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32편 중에는 그의 著述로서 의심스런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選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6. 老子～道家의 創始者로 알려진 老聃의 著述. 책이 道經·德經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道德經」이라고도 부른다. 내용은 짧은 道家의 金言集같은 성격의 것이다. 錢穆 같은 학자 처럼老子를 부정하거나 또 의심하는 이도 많으나, 이 책이 후세 中國文化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므로 자세한 解說을 붙여 完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7. 莊子～戰國時代 莊周의 思想이 썩어 있는 책. 莊子는老子와 함께 道家를 대표한다. 内篇·外篇·雜篇으로 크게 나뉘이고, 다시 거기에는 각각 7편·15편·11편의 글들이 담겨

져 있으나, 대체적으로 内篇 만이 莊子의 思想을 쓴것이고, 外篇·雜篇에는 後世 道家의 思想이 섞여 있다. 따라서 「莊子」는 内篇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글들을 選譯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後世 道家思想의 發展 變化도 이해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8. 列子～道家三書 중의 하나라 알려져 있으나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列子」는 후세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도합 8편의 「列子」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후세 道家思想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책이다. 이것도 분량이 많지 않아 完譯이 가능하다.

9. 墨子～戰國 初期의 墨翟이 썼다는 책. 墨翟은 兼愛와 勤儉 節約을 주장하여 墨家의 創始者가 되었다. 본시는 모두 71篇이었으나(「漢書」藝文志) 지금은 53篇만이 전한다. 그 속에는 〈墨經〉이라 부르는 墨家의 論理學에 관한 편들과 11편에 달하는 兵法에 관한 글 및 墨子의 弟子에 관한 글들도 들어있어, 전부를 翻譯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清 孫詒讓의 「墨子閒詁」는 반드시 參照하여야 할 것이다.

10. 韓非子～戰國 末葉 韓나라의 韩非가 지었다는 책. 秦始皇의 丞相 李斯와 친구 사이였으며, 法家思想을 대표하는 著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55편이 전하나, 그의 法術 刑名을 強調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選譯하는 것이 좋겠다.

11. 孫子～戰國時代 孫喜이 지었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兵書이다. 도합 13편으로 軍事의 原理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兵術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이 근래에 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兵術이 社會에서의 處世術과도 통하는 것이기 때문인듯하다.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朱子文選～「朱子語錄」 등을 중심으로 하여, 朱熹의 思想을 대표하는 문장을 골라 翻譯한다. 되도록 宋代 性理學의 全般的인 特徵을 이해할 수 있도록 解說과 選文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朱熹의 著述은 너무나 龍大하여 選文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王懋竑의 「朱子年譜附朱子論學要語」 같은 책을 翻譯하여도 좋을 것이다.

13. 傳習錄～明代 王陽明의 思想을 대표할 수 있는 글을 그의 門人이 편집하여 이룩한 책. 지금 전하는 「傳習錄」은 上·中·下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의 편집시기는 같지 않다. 上·下권은 모두 語錄이어서 되도록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中권에서는 그의 思想을 가장 잘 대표하는 편지 등 몇편의 글만을 選譯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 抱朴子～東晋 葛洪이 지은 道教思想을 대표하는 책. 그 내용은 內外篇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다시 内篇에는 20편, 外篇에는 52편의 글이 실려 있다. 道教는 神仙術 등 迷神의인 내용도 있으나 中國의 民間信仰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内篇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글들을 選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社　　會〉

1. 書經～儒家의 經典 중 「三經」의 하나. 옛날 史官의 기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堯典·舜典·夏書·商書·周書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도합 58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러나 清代 學者들의 考證 결과 이 「古文尚書」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그 속에는 진짜인 「今文尚書」 33편도 들어있어 다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今文尚書」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글들을 選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左傳~「左氏春秋」 또는 「春秋左氏傳」이라고도 부르며, 孔子와 비슷한 시대의 左丘明이 지었다 한다. 보통孔子가 지은 「春秋」의 내용을 해설한 〈傳〉이라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春秋」도 「左傳」으로 말미암아 읽혀왔다고 할 수 있다. 春秋시대 歷史에 관한 기록이나 그 중요한 부분을 選譯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戰國策~戰國時代의 일들을 기록한 책으로, 본시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전하는 책은 漢代 劉向이 33편으로 정리한 것이라 한다. 이것도 그 중 중요한 기록들만을 選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4. 史記~漢代 司馬遷이 지은 中國最初의 본격적인 歷史書이다. 黃帝로부터 저자가 산漢武帝에 이르는 시대의 歷史를 記述한 책으로, 本紀 12권, 書 8권, 表 10권,世家 30권,列傳 70권 등 총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列傳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기록들을 選譯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解說에서는 「史記」뿐만이 아니라 中國의 後世 正史의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만 할 것이다.

5. 明夷待訪錄~清初 黃宗羲가 쓴 治道를 論한 책이다. 이 책은 君主論·臣下論에서 시작하여 田制·兵制·財政論 등 13項目을 21章으로 나누어 論述하고 있다. 다만 儒家思想에 執着하고 있는 著者の 태도를 批判的인 눈으로 볼 때 이 책의 가치는 더욱 提高될 수 있을 듯하다. 完譯이 가능하다.

6. 大同書~清末의 康有爲가 지은 儒家의 理想社會를 그린 책이다. 西洋의 民主主義나 佛教의 영향 같은것도 보이기는 하지마는 中國人の 理想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完譯이 가능하다.

7. 三民主義~현대 中國의 國父로 떠받들어지는 孫文의 政治理論을 정리한 책. 國民黨政府에서는 지금도 그들의 政治原理를 해설한 經典처럼 떠받들고 있다. 民族·民權·民生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天工開物~明末에 宋應星이 쓴 책으로, 中國에서는 보기 드문 그 시대의 산업기술에 대해하여 쓴 特異한 것이다. 내용은 穀物·衣服·染色·調製·製鹽·製糖·製陶·鑄造·舟車·鍛造·焙燒·製油·製紙·製鍊·兵器·朱墨·釀造·珠玉 등 18부문의 재래식 산업기술이 3권으로 나뉘어 기술된 것이다. 中國科學史의 소중한 자료이므로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西 洋 的 古 典

朴 熙 鎮

(英文科 副教授)

目 次

I. 西洋古典의 意義	1. 選定 原則
1. 古典이란 무엇인가?	2. 古典 百選
2. 西洋의 古典	(1) 文 學
3. 古典教育의 오늘	(2) 哲 學
(1) 西洋 古典教育의 오늘	(3) 社會科學
(2) 韓國 古典教育의 오늘	(4) 歷 史
(3) 現代人과 古典教育	(5) 自然科學
II. 西洋古典 百選	III. 結 語

I. 西洋古典의 意義

1. 古典이란 무엇인가?

自古以來 東西洋을 막론하고 教育이란 위대한 책들을 읽는 것이었다. 위대한 책들이란 기나긴 시간의 엄격한 심판을 당당히 견뎌낸 책들을 일컫는다. 심판이 끝난 후 인류가 입을 모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들이라는 판결을 내린, 소위 ‘위대한 책’들을 우리는 ‘古典’이라고 부른다. ‘古典’이란 “뒷날에 남을만한 옛날 서적, 즉 클래식(classic)”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classic’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번째 뜻은 “最優秀의”, “一流의”, “傑作의” 등이다.

이렇듯 긴 세월의 예리한 심판과정을 끊임없이 견뎌내는 위대한 작품은 그것이 지니는 가치나, 그것이 發하는 향기가 유달리 탁월하다. 그것이 지니는 가치는 작품을 낳은 작가의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먼 후세의 異地域의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그 민족에 호소했던 것과 같은 호소력을 지닌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위인들이 그렇듯이 위대한 작가들은 그들의 죽음과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국적을 잊게 되고, 또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사망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후세 사람들의 가슴속에 길이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전이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피상적이고 可變的인 문제들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두뇌(head)의 영역보다는 가슴(heart)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다. 두뇌의 영역은 수시로 변하지만 가슴의 영역은 인간이 인간인 한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생활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을 하다가 室內에서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받아 먹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두뇌의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문제라든가, 삶에 수반되는 희노애락이라든가, 인간과 인간간의 愛憎問題 따위는 가슴의 영역으로서 이들은 쉽사리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쉽사리 변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위대한 책들이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지혜인 까닭에 이 위대한 책들 안에 스며있는 지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문제를 어느 인간이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이 훌륭한 책들은 또한 우리에게 인류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통을 이해함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명해줌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욱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듯 위대한 책들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빛을 얻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古典이 시사해 주는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인이라는 명칭은 고사하고 교양인이라는 명칭도 지닐 만한 사람들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古典은 그것이 인간의 지적 사고와 윤리적 경험의 가장 심오한 표현인 만큼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내포된 심오한 의미와 교훈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암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편에서의 지적 수련과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전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양의 시간을 할애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의하여 피교육자에게 부과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시대에 써여진 古典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계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맞닥드리게 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꾀상적이고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한 책들을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여 현대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를 전져내는 일이란 상당한 양의 시간과 정력의 투자 및 지적 수련과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東西洋에서 과거에는 교육이라면 人文教育을 뜻하였고, 人文教育이란 무엇보다도 고전교육이었다. 따라서 西洋에서는 고전을 공부할 수 있는 언어매체인 희랍어와 라틴어의 습득이 소위 '지식인'의 필수조건이었다. 東洋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전통을 더듬어 올라가 보아도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西洋의 인문주의 전통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나 학문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자는 데에 있었고, 인간의 인간다움이 지식의 추구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2. 西洋의 古典

‘古典’이라는 것의 참모습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 진수에 있어서는 西洋의 古典이 굳이 東洋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나날이 좁아져서 급기야는 하나의 지구가족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西洋古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古典을 읽어야 하는 일반적인 대의명분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문학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웨렉(René Wellek)이 文學을 ‘英文學’, ‘獨文學’, ‘佛文學’ 등으로 구획을 짓는 것은 뜻이 없는 일이며, 이렇듯 불필요한 구분을 짓지 말고 그저 ‘文學’으로 통일해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던가, 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필자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추세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면 ‘西洋文學’ ‘東洋文學’의 구분이라든가, ‘西洋古典’, ‘東洋古典’의 구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날도 멀지 않았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영국인과 독일인의 가슴의 소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듯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슴의 소리도 결국은 같은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슴의 소리를 담은 그릇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독자가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을 이해하고, 그 내용물 안에서 지혜를 전져내는 작업에 그 그릇이 약간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어쨌거나 거의 3,00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축적되어온 방대한 양의 西洋古典의 寶庫는 인류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서 지혜를 짜내기 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3. 古典教育의 오늘

(1) 西洋 古典教育의 오늘

지난 50여년간에 있었던 급격한 사회적 변모에 의하여 古典教育이 미국의 교육계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고, 엔싸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 회사가 시카고 대학과 공동 제작한 방대한 『西洋古典全集』(Great Books, 1952)의 편집장인 허친스(Robert M. Hutchins) 박사는 이 『全集』의 서문에서 통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그가 이 全集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西洋文化圈에 있어서 하나의 原型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현상, 즉 고전교육의 不在現象은, 인류의 知性史에 있어서 가공할만한 탈선이며, 기 필요 시경되어야 할 과오이지 절대로 인류 문명발전의 한 증거가 아니라고, 허친스박사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과 같이 全人的 教育, 技能人이 아닌 人格體로서의 인간교육이 범세계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대도 드물다 하겠다. 기계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이에 부응하여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진 나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인간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소외되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가 현대인 것이다.

그래도 西洋의 고전교육의 실패는 허친스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암울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 물론 과거의 고전교육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이라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여 교육이나 학문의 분업화와 전문화 현상이 심화되는 바람에, 인문교육 부문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엄연히 인문교육의 명맥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 고전교육의 매체언어이던 회립어와 라전어의 습득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락(?)했으나 西洋의 고전교육은 아직도 교과과정 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전의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전작품이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는 실태이다.

(2) 韓國 古典教育의 오늘

視線을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볼것 같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李仁浩教授가 서울大學校『人文論叢』第8輯에 기고한 “人文科學 研究 및 教育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 名門大의 교과과정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고전이 교과과정에 필독서로 들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李教授가例로 제시한 美國의 名門大學 中의 하나인 컬럼비아대학의 人文學 강좌의 독서목록(필독서)을 살펴볼 것 같으면, 西洋의 중요한 古典이 폭넓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西洋古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효의 동양고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친스박사는 西洋(구체적으로 美國)의 고전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통탄을 금치 못하고, 현대학문의 지나친 분업화와 전문화 현상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東洋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의 분업화나 전문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에 우리나라 특유의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西洋의 고전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전통적인 인문교육에서도 완전한 단절이 생기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에만 강세를 두어 온 나머지 人文系列의 科目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물질적인 성장이나 혹은 사회적인 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科目(主로 人文科學 科目들)들은 정부차원에서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바야흐로 이제 우리는 한국 고전교육의 실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기에 당도해 있다. 현대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분위기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학생데모 방지에 급급

해 있는 대학당국이나, 학점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고 졸업후에 수입이 많은 직장을 확보할 것 외에는 여념이 없는 학생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의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혜라는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교양이라는 기본단계에서 우선 고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제 한국의 현대인은 바깥세계를 무시하고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는 기본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한국 지식인들과 같이 東洋의 古典教育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다. 게다가 入試爲主의 수험공부니, 객관식 시험문제니, 상대평가니 해서 지극히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세대가 다름아닌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이 대학생들의 교양문제가 논란되어온 시대도 드물 것이다. 가히 현대 한국 대학생들은 教養不備의 知識人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現代人과 古典教育

英國의 生物學者이며 동시에 教育者였던 헉슬리(T.H. Huxley)는 교육받은 사람, 즉 지성인을 “人文教育의 定義”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성인이란, 어렸을 때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그의 육체가 완전히 意志의 지배를 받고, 그의 知力은 냉철하고 논리적이며,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침이 없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해낼 수 있고, 그의 머리에는 자연의 위대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성인은 발육부전의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활기와 정열이 넘치는 인간인데, 그의 정열은 양심의 하수인인 강한 의지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 적절한 제지를 받도록 훈련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헉슬리는 계속해서, 자연적인 것이나 인공적인 것이나 간에 아름다운 것은 모두 사랑하고, 모든 惡을 증오하며, 他人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존중할 수 있도록 수련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定義가 맞는 것이라면 현대의 知性人像是 헉슬리의 그것에서 너무도 먼 거리에 있다. 러셀(Bertrand Russel)이 그의 “競爭”이라는 글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인은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나 가을에 그 계절들이 펼쳐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전혀 감흥을 느끼지 않고 단지 株式時勢의 변동이 일어나는 계절이라는 측면에서만 봄과 가을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역시 고전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교육인 것이다.

무모하고 위험스럽게 자연을 경복하겠다고 나서고, 극도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며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자연이거나 인공적인 것이나 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즐기기는 고사하고 그의 관심의 영역이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善과 惡이나, 美와 醜의 개념 이전에 實利性만이 그의 主된 관심사가 되어 있는 현대인은 확실히 인간답게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러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쌍하게도 여가선용의 전전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여가선용의 전전한 방법도 고전교육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여가를 어떻게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급기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힘들여 얻은 좋은 여가의 제물이 되고 만다.

러셀은 다른 모든 생각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의 고전교육의 不在상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과거의 고전교육을 향수어린 필치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교육기관이란 크게 말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즐길 수 없는 텔리케이트한 즐거움들을 享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었다. 이 능력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작품이나 음악이나 미술의 감상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18세기에는 지성인이라는 칭호는 문학, 미술, 그리고 음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가?

현대인의 독서클럽들이 『햄릿』이나 『리어왕』과 같은 고전을 그댈의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한 달이 한 달도 없으며, 단테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독서모임을 가진 달도 한 달도 없었다고 러셀은 말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독서클럽에서는 어떤 책들을 읽는가라고 自問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自答한다. 즉 현대인들은 전적으로 현대서적만을 읽는데, 이 현대 서적들은 古典이 될 가능성성이 전혀 혹은 거의 없다. 그는 계속해서, 불과 50년이나 100년 전만 해도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웬만큼 좋은 문학작품들은 모두 通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국소주의 전문가들만이 이들을 알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들은 셰익스피어나 밀톤의 작품과 같은, 그 가치를 축량할 길이 없이 홀륭한 작품들은 전혀 읽지 않고, 광포하고 자극적이고 병적이며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현대소설만 읽고 있다. 이 자극에 대한 현대인의 병적인 갈증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현대인이 받은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기계나 동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

삶의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文盲인 괴물(monster)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대인이 여지껏 지구상에 살아왔던 인간들과 다른 가슴(heart)을 지닌 동물이거나 혹은 기계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시대에 따라서, 삶의 지엽적인 것들이 그렇듯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닌 가슴을 현대인도 엄연히 지니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근본적인 것이 지엽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시대의 인간보다도 영악한,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한 현대인들은 계속 근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지엽적인 것만 살찌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한 인간의 불행 또는 그의 인생파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의 집합체인 전인류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가공할만한 현상이고 또 현재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줌으로써, 인간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지닌, 따라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고전교육이 맡아서 해야 한다. 기계문명과 황금만능주의 풍조의 사회에서 현대판 恐龍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의 회귀를 시켜줄 수 있는 길은 오직 고전교육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고전교육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포기해 버린 조용하고 견진한 즐거움들을享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머리와 가슴의 균형이 잡힌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본다 하더라도 귀착점은 같은 곳이다. 즉 우리가 비록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국면 모두가 고전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혁슬리의 知性人像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육체가 의지의 지배를 받고, 모든 惡을 중요하며, 타인을 자신처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꽂힐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고로 자기의 처신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될 지성인들이 혁슬리가 제시한 자질들을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은, 흡사 괴물을 닮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 사회나 국가가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지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정치체제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 민주주의를 꽂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利點이 첨부된다. 그것은 교육받은 계층 곧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지도자가 될 사람

들 사이에 공통된 지적 기반과 가치관의 형성을 가능케 하며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식층이 공통된 가치관과 문화적 기반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사회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현대의 대학생, 그리고 일반 교양인의 知的・精神的 形成에 있어서 古典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한 것이다. 인류가 쌓아올린 경험과 사색의 寶庫인 고전은 우리에게 모든 知的 探求에 선행되는 옳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그리고 모든 도의적 시도에 선행되는 자아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잡다한 지식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되 진정한 인간학이 결여된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고전의 탐독은 정상으로의 회귀를 촉진시켜 줄 것이다. 고전은 피상적이고, 지엽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으로부터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 줄 것이다. 고전교육은 우리를 괴물로서 이 지구상에 서식하게 하지 않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균형잡힌 삶을 영위하게 해 줄 것이다.

II. 西洋古典 百選

1. 選定 原則

두루 30세기에 가까운 長久한 세월동안 축적되어온 방대한 양의 西洋의 古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100卷이라는 한정된 수호의 도서를 선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즐거운 비명이라는 논평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탈락시키는 일은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選擇定過程에서는 세 가지 大原則을 세우고 작업에 임했다. 첫번째 大原則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 중에서도 한국문화의 전통 속에 남을 수 있는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번 원칙에 대하여 약간 부언한다면, 西洋의 古典 가운데서 한국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또한 끼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이는 작품, 또한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서양의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고자 했다. 특히 도덕적인 측면, 즉 물질문명 속에서의 정신관리문제와 직결된 것 같은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다.

셋째로는 한국의 현대 대학생들을 위해서 산 교양이 되고, 생활의 지혜가 되기에 적합한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이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古典’으로서 알려진 모든 서적은 현대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들을 전부 정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르는 선택이 불가피했다. 古典읽기를 위한 古典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의 知性的 思考력을 조장하고, 현대 한국인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고전을 우

선적으로 선정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선정과정에서 選者가 준수하려 했던 細目들이다.

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지나치게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작품은, 바로 그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소위 美學的 距離(aesthetic distance), 즉 원근법에 필요한 거리의 미달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투시의 거리가 가까워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작가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러한 작가는 긴 시간의 심판을 거친 후 고전의 대열에 끼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때는 대단한 人氣를 누리지만 세월에 여과된 후 종국에는 망각의 높 속에 묻히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이드 이후의 작가는 고의로 선정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특히 탁월한 것들을 선정하여, 별도로 ‘오늘의 古典’叢書를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비록 현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많이 읽히고, 고전의 대열에 낄 가능성이 自明한 것들은 몇몇 卷 선정했다.

②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작품의 ‘現代性’(modernity)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작품이 쓰여진 年代와 경비례하지는 않는다. 아득히 먼 과거에 쓰여진 작품이 최근에 쓰여진 작품보다 훨씬 더 ‘現代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삶의 지엽적인 측면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모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古古典보다는 新古典을 더 많이 선정하려 했다.

③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즉 어느 나라에 몇 명이라는 配分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목소리들, 다시 말해서 삶의 기본문제들을 다루고 그것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은 목소리들을 주로 선정하려고 했다.

④ 모든 작품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위대한 작품은 가능한 한 논평없이 적접 독자와 만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빌체를 한다거나 요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의 성격상 全文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⑤ 聖經은 위대한 古典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서는 제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⑥ 소재와 그것을 다룬 방법, 또는 제시된 지식의 종류에 따라서 책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작품들을 편의상 (1) 文學, (2) 哲學, (3) 歷史, (4) 社會科學, (5) 自然科學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文學은 詩와 희곡, 소설 그 밖의 온갖 문예 창작품을 포함한다. 哲學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의 저술을 포함한다. 자연과학은 과학과 수학으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저술을 포함한다. 역사는 주

로 역사에 관한 책들이고, 사회과학은 정치학 저서, 사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서적들이 포함된다. 물론 개중에는 작품의 성격에 신축성이 있어서 어느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처리했다.

⑦ 이렇듯 방대한 양의 고전에 접하게 되면 우선 이 분량에 압도되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읽어 나가야 할지 망막한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작품 하나하나가 독립된 個體이고 그것 나름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작품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역시 이상적인 방법은 年代順으로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 이유는 各世代의 作家群은 그 앞 世代의 고전들을 다 읽고, 그 작품들이 밀결음이 된 토양위에 그들 작품이 꽃을 피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된 작가의 연대를 가능한 한 표기했다.

2. 古典 百選

(1) 文 學

Homer(연대 미상)

① *Iliad*

② *Obyssey*

Aeschylus (c. 525—456 B.C.)

③ *Tragedies* (selected)

Sophocles (c. 496—c. 406 B.C.)

④ *Tragedies* (selected)

Virgil (70—19 B.C.)

⑤ *Aeneid*

Plutarch (c. 46—120)

⑥ *The Lives of the Noble Grecians and Romans* (selected)

Dante (1265—1321)

⑦ *Divine Comedy*

Chaucer (c. 1340—1400)

⑧ *Canterbury Tales*

Montaigne (1533—1592)

⑨ *Selected Essays*

Cervantes (1547—1616)

⑩ *Don Quixote*

Shakespeare (1564—1616)

- ⑪ *Hamlet*
- ⑫ *Othello*
- ⑬ *King Lear*
- ⑭ *Macbeth*
- ⑮ *The Merchant of Venice*
- ⑯ *Julius Caesar*
- ⑰ *Tempest*

Milton (1608—1674)

- ⑱ *Paradise Lost*

Molière (1622—1673)

- ⑲ *Le Misanthrope*

Bunyan (1628—1688)

- ⑳ *The Pilgrim's Progress*

Swift (1667—1745)

- ㉑ *Gulliver's Travels*

Voltaire (1694—1778)

- ㉒ *Candide*

Goethe (1749—1832)

- ㉓ *Fraust*

Dostoevsky (1821—1881)

- ㉔ *Karamazov Brothers*
- ㉕ *Crime and Punishment*

Tolstoi (1828—1910)

- ㉖ *War and Peace*
- ㉗ *Anna Karenina*

Shaw (1856—1950)

- ㉘ *Man and Superman*

Kafka (1883—1924)

- ㉙ *Das Schloß*

Gide (1869—1951)

- ㉚ *Straight Is the Gate*

Camus (1913—1960)

- ㉛ *L'étranger*

Platon (c. 428—348 B.C.)

㊲ *The Dialogues* (selected)

Aristoteles (384—322 B.C.)

㊳ *Metaphysics*

㊴ *Nicomachean Ethics*

㊵ *Politics*

㊶ *On Poetics*

Augstine (354—430)

㊷ *The Confessions*

Descartes (1596—1650)

㊸ *Discourse on Method*

Pascal (1623—1662)

㊹ *Pensées*

Spinoza (1632—1677)

㊺ *Ethics*

Locke (1632—1704)

㊻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erkeley (1685—1753)

㊼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Hume (1711—1776)

㊽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Kant (1724—1804)

㊾ *The Critique of Pure Reason*

㊿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㊿ *The Critique of Judgement*

Humboldt (1769—1859)

㊿ *The Heterogeneity of Language and Its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ankind*

Hegel (1770—1831)

㊿ *The Philosophy of Right*

㊿ *The Philosophy of History*

Mill (1806—1873)

㊿ *On Liberty*

㊿ *Utilitarianism*

Darwin (1809—1882)

⑤⑨ *The Origin of Species*

Kierkegaard (1813—1855)

⑩⑩ *Either/Or*

⑪⑪ *Stages on Life's Way*

Nietzsche (1844—1900)

⑫⑫ *Beyond Good and Evil*

⑬⑬ *Thus Spoke Zarathustra*

Heidegger (1889—1976)

⑭⑭ *Sein und Zeit*

Bergson (1859—1941)

⑮⑮ *The Creative Mind*

(3) 社會科學

Machiavelli (1469—1527)

⑯⑯ *The Prince*

More (1478—1535)

⑰⑰ *Utopia*

Hobbes (1588—1679)

⑱⑱ *Leviathan*

Montesquieu (1689—1755)

⑲⑲ *De l'esprit des Lois*

Rousseau (1712—1778)

⑳⑳ *A Treatise on the Social Contract*

Smith (1723—1790)

㉑㉑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Bakunin (1814—1876)

㉒㉒ *The State*

Marx (1818—1883)

㉓㉓ *Capital*

James (1842—1910)

㉔㉔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Freud (1856—1939)

㉕㉕ *The Interpretation of Dream*

⑯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Durkheim (1858—1917)

⑰ *Suicide*⑯ *The Division of Labour*

Dewey (1859—1952)

⑰ *Democracy and Education*

Weber (1864—1920)

⑯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⑭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Geist des Kapitalismus*

Jung (1875—1961)

⑯ *Psychology and Religion*

Keynes (1883—1946)

⑯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alinowski (1884—1942)

⑯ *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Benedict (1887—1948)

⑯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Mannheim (1893—1947)

⑯ *Ideology and Utopia*

Laski (1893—1950)

⑯ *Liberty in the Modern Society*

Myrdal (1893—)

⑯ *Asian Drama*

Mead (1901—1978)

⑯ *Coming of Age in Samoa*

Skinner (1904—)

⑯ *Beyond Freedom and Dignity*

(4) 歷 史

Herodotus (c. 484—425 B.C.)

⑯ *History*

Thucydides (c. 460—400 B.C.)

⑯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Gibbon (1737—1794)

㊶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Burchardt (1818—1897)

㊷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Toynbee (1889—1975)

㊸ *A Study of History*

Carr (1892—1982)

㊹ *What Is History?*

Lefebvre (1874—1959)

㊺ *Quatre-Ving-Neuf*

Bloch (1886—1944)

㊻ *La Societe Féodale*

(5) 自然科學

Lucretius (c. 98—55 B.C.)

㊼ *On the Nature of Things*

Nicomachus (c. 100)

㊽ *Introduction to Arithmetic*

Kepler (1571—1630)

㊾ *Epitome of Copernican Astronomy*

Galileo (1564—1642)

㊿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s*

Newton (1642—1727)

㊿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㊻ *Optics*

Fourier (1768—1830)

㊽ *Theory of Heat*

Farady (1791—1867)

㊿ *Experimental Researches in Electricity*

Einstein (1879—1955)

㊿ *The Meaning of Relativity*

III. 結 語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서 자못 심각한 상태에 다다라 있다고 간주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인간발전이라는 측면은 지나치게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음으로 그동안 소홀히 해 온 정신적인 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하는 때가 바야흐로 당도했다고 간주된다. 이제부터는 인간발전의 데두리 안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교양이나 삶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현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감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원래는 哲學이 제기했던 삶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들, 곧 善과 惡은 어떤 것이고, 자연은 어떤 것이고, 국가란 어떤 것이고 美와 魄는 어떤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은 고전을 탐구해야 한다. 책을 통해서 先賢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어서 영악스럽기만 하고 지혜는 없는, 괴물 형상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 서의 지식만 갖춘 기계 같은 인간이 아니고 全人格體로서, 가슴과 머리가 균형이 잡힌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전작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및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겸비하고 있는 다양한 개체로서의 인간이었다. 고전작가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문화를 학습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전을 必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하겠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오직 ‘실리성’, ‘효율성’에만 강세를 두어 완전히 主客이 전도된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고전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치달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정신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실리성’, ‘효율성’이 과연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이미 인류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나 가치들을 발굴해내게 되고 그것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속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고전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이미 이루어 놓은 문화는 애석하게도 망각의 잣더미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역사의 발전이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고전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계속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인류전체의 파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고전 작품은 논리적인 사고의 측면보다는 情意的 이해를 요하는 것들로써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다는 주로 간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들, 즉 비평서나 논문들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직접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곧 책을 읽어서 지식이 풍부해진다기보다는 情意的 이해, 즉 간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좀더 끌고 나가 본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一回的인 것이지만 고전을 읽음으로써,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해서 삶의 一回性이라는 속명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요성이 너무도 자명한 고전교육을 터무니없게도 그동안 지나치게 소홀히 해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고전들을 선정해서 읽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韓國古典의 形成과 그 意義

沈 在 龍

(哲學科 助教授)

目 次

- | | |
|-------------|---------------|
| 1. 韓國古典의 現況 | 4. 結 語 |
| 2. 韓國古典의 形成 | 附：印度 및 佛教의 古典 |
| 3. 韓國古典의 意義 | |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임을 못 봐도

예던 길 알패 있내

예던 길 알패 있거니

아니 예고 어쩔고.

退溪 李 涉

(1501~1570)

陶山 十二曲 가운데 後六曲의 셋째 수를 글머리로 삼는다.

1. 韓國古典의 現況

1. 1. ‘한국고전’이란 개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나란히 둑어 놓은 것이다. ‘고전’이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책으로 이해될 때, ‘한국’이란 곳으로 한정된 고전 즉 ‘한국고전’은 이미 영원불멸하는 진리를 내포한 책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고전이란 말은 문제성이 있는 개념이다.

단순히 한국의 옛 전적을 치칭하는 서지학적 차원에서의 한국고전이 아니라, 명실상부 한국고유의 주체적 사상이 한국인의 손으로 저술되었거나, 한국고유의 문자로 기록되어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내포하며 동시에 범세계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어 한국의 고전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 이 글을 쓰는 데 몇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뜻을 적어 놓고 싶다. 筆者的淺學非才를 이끌어 주시고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本研究責任者 金泰吉교수의 厚誼를 우선 기록한다. 韓國古典形成史의 큰 줄거리를 잡아볼 수 있는 實學關係 논문에 눈을 뜨게 해준 분은 同途의 崔柄憲교수였다. 또 同學 權寧珉교수는 1930年代에 일어났던 古典研究熱과 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당시의 일간신문 및 잡지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였다. 철학과 대학원 T.A. 李奉宰군은 시중 책방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現行 한국고전관계서적 목록 작성에 한 손을 덜어주었다.

들이 세계의 고전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한국고전’이 문제성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先人们가 남긴 전적을 그대로 古典이라 아니면 名著라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¹⁾ 오래되어 묵은 옛날 책으로서의 古典들이 계속 人生의 걸작이나 학문의 안내역으로 傳承되어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난 책 즉 名著로 틀바꿈했던가, 아니면 ‘古典’과 ‘名著’ 사이에 뚜렷한 구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필자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²⁾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1960년대부터 우리는 부쩍 ‘한국의 것들’ ‘우리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사실을 목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전·명저·대저 등이 책방을 메우고 있는 사실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1. 2. 한국것—우리것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설명해 보자. 우리들은 이제 80년대의 중반을 넘어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의 20세기는 19세기 말로부터 근 백여년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서구 열강의 재빠른 모방으로 근대화의 대열에 뒤늦게 끼여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한민족문화말살정책에 희생된 한국인 제1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정위치를 확인하기도 전에 낡은 두루마기를 ‘당뇨바지’나 ‘몸빼’로 갈아입고, 일본어를 國語로常用해야하는 비극을 감수해야 했다. 36년간 日帝下의 한국지성인들은 反日 저항운동과 애국운동을 동일시함으로써 주체적 자각과 자존심을 유지했으나, 해방 뒤의 적극적 자립과 自主的 창조적 문화활동에는 그 동안의 소극적 반향에 만 젖어 왔던 타성 때문이었던가 별로 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日帝에게 세 나라까지 빼앗긴 못난 자신이 불쌍하고 그 못난 조상이 미웠던 때문인지 우리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리타분하고 못생긴 것으로 치부해서 돌아보려하지 않았다. 西洋의 文物이면 무엇이든 좋았다. 서양의 사상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오, 올바른 생각

1) 後者の例로 1969年 9月 玄岩社에서 낸 <韓國의 名著>와 1980年 12月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교양국사총서 36으로 나온 <한국의 명저>가 있다. 前者の例로서는 1969년 정월 월간 잡지 新東亞 별책부록으로 나온 <한국의 고전백선>이 있다.

2) 우리가 논의하려는 한국고전에 名著·大著·古典을 구분하려는 혹자가 자의로 선별기준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 6세기 中國僧 慧皎(497~554)는 책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도 옛 스님네(古僧)를 評하여 傳記를 수록할 적에 名僧과 高僧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若實行潛光則高而不名。

寡德適時則名而不高。

(大正新修大藏經 50卷 519a)

‘여지껏 끌어 모은 스님네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名僧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름이란 본래 알찬 내용이 없는 걸껍질이다. 만약 행실은 돈독하나 구태여 빛을 들어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德이 높으나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德은 없이 때를 잘 타고나면 이름은 나지만 덕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덕이 높고 이름이 나지 않은 高僧만을 간추려기록 한다’

글자를 따라가며 걸껍질인 이름들을 구분짓는 작업을 筆者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名著이건 古典이건 한국고전의 현황을 살피고 그 역사의 뿌리를 캐며 앞으로 어떤 책을 과연 한국고전으로 삼을 것인가 연구해 보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출판의 양으로 따지면야 홍미위주의 괴부감 각자국제 아니면 입시위주의 요점정리서가 서울의 종잇값을 올리는 유명한 책이겠지만…….

이었다. 서양바람—洋風이 日帝를 벗어난 제 2 세대—자유세대를 세차게 휘몰아쳤다. 반드시 美軍의 진주와 6.25의 서양우방 진출탓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洋風은 한국에만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西歐의近代化란 이상을 단시일에 구현하려는 현실적 의지가 동양의 모든 지식인들에게近代화와 西歐化를 구별짓지 못하고 洋風에 눈이 멀게 했던 것이다. 조상의 전통적 옷을 벗어 던지고 서양의 모던·스타일, 패션·모드를 뜻해 입었다. 그리고 현대인임을 자랑했다. 6·25 직후의 춤바람, '자유부인' 따위가 걸껍질만의 洋風에 놀아나는 한국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교차로」란 활동사진 속에서 조미령은 뾰족구두를 신고 몸에 꼭 맞는 양장으로 가파른 계단을 위태위태하게 올라간다. 배부른 사장이 양복을 입고 팔자걸음으로 쫓아간다. 목이 졸리고 배가 조여서 불편한 것, 서양옷은 본래부터 우리한테 걸맞지 않는 것임이 드러난다. 두루마기를 찾아입자. 곰방대를 찾아 물자. 치마저고리로 갈아입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아니한 제 3 세대는 제 2 세대의 풀불견 양풍에 식상한 모양이다. 우리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國風이다. 사주팔자 관상까지·산신령·무당굿까지 洋式 대학가에 불러들이는 國風의 열기는 저 洋風 못지 않게 한국인을 들뜨게하는가 보다. 日帝가 물려간 문화의 빈 광장에 洋風과 國風의 이중기류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한국문화의 혼주소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1.3. 日帝를 미워하면서도 그 文化에 대응할 주체적 자각을 지니지 못한 恨맺힌 제 1 세대는 술만 자시면 그래도 나오는 것은 요상한 일본노래요, 文字를 쓴다고하면 딱딱한 日本語다. 해방과 자유의 제 2 세대는 팝송에 꼬불랑말을 文化人の 꼬리표로 생각하는 洋風에 젖어있고, 6·25의 고통을 모르는 제 3의 한글세대는 어른들의 짓눌리고 뒤틀린 모습을 뛰어넘어 저들의 뿌리를 찾는 열기에, 골방의 것은 무조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잘못생각하는 國風의 열기에 둘떠있다. 이제 한국문화를 지탱하고 이어 나가는 세가지 대표적 유형을 세대에 전주어 인상적으로 점묘해 보았으나 과연 한국고전이 서점가를 어느 만큼 언제부터 자리하게 되었는지 위의 國風과 관련하여 살펴 볼 차례다.

흔히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조상의 문화적 위인·영웅들에 기대어 세워 보려는 바람에서 광화문 거리에 줄줄이 석고상들을 날림으로 만들어 나열한 것을 國風의 첫 효시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해방의 와중에서 또 6.25의 폐허를 해치고 민족문화의 주체적 연구·선양을 의치고 나선 것은 민간주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연구·출판사업이 그 처음이다. 제 3 한글세대의 이상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그 취지문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거래가 작은 중화[小中華]가 아니면 가왜놈[假倭奴]이 다 되고 말았을 것이니, 아무리 연합군의 승리가 있었더라도 조국의 광복은 없었을 것이요, 설령 조국의 광복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써 민족주의 자유사상의 기반 위에다가 독립국가를 운영하여 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한 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독립이 있었음도 확실히 한글의 은덕이며, 배달져래의 오늘의 자유가 있음도 또한 세종대왕의 은덕 아님이 없다. 한글은 다만 배달 거래에게 과거 및 현재의 힘일

뿐 아니라,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나니, 여기에 세종대왕의 위대한 성덕은 고급과 미래를 통하여 한 없이 크다할 것이다.”³⁾

이 사업회는 〈세종실록〉 36책 국역간행을 비롯하여 〈성종실록〉 8책 등 도합 69책의 실록을 국역발간하고, 문고본 교양국사총서 37책을 발행하여 한국고전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어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한글세대와 세종대왕을 연결하는 국어학자 및 교육자를 주축으로 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25년을 넘겨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80년대 후반의 한국인들은 한국고전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한국고전이 담은 한국사상의 연구는 아직도 결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58년 7월 10일 한국사상연구 편집원일동은 이렇게 호소한다.

“남을 알기에 바빴던 우리는 이제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즈러진 얼굴을 보고싶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외래사상으로 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사상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 위에 의례사조를 수입·소화해야겠다는 자각에 눈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활은 있었으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의 이념이 없어 우리의 넓은 자기를 잊고 방황한지 이미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자신을 돌보아야겠다는 자각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의 고전이 있고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이나 남의 위인을 보고 살던 〈생각의 구걸〉에 치친 우리는 우리의 위인, 우리의 古典이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민족도 위대한 꿈을 엮어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⁴⁾

한국고전의 핵심인 한국사상연구는 1963년 2월 15일로 정식 「한국사상연구회」로 발족하여 써클운동의 범위를 넘어 범국민적 국학사상의 보급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 不定期의로 16년동안 겨우 열집을 낸 〈한국사상〉은 문제의 제기와 분위기 조성에 한 보탬이 됐다는 10년간의 회고이다.⁵⁾ 근대화란 기치밑에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60·70년대에 한국고전에 관련된 출판현황을 알아보자.

1962년에 나온 대중적 교양물 〈현대인 강좌〉 전 7권에는 별권으로 〈한국의 발전〉을 집어 넣는다.⁶⁾ 새삼스레 한국을 발견한다는 생각부터가 도무지 이상하기 짝이 없다. 바로 위에 인용한 한국사상연구회 동인들의 호소가 점차 일반 교양국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감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제 1 세대의 미숙한 정신력으로 야기된 혼란과 전통 속에서 잊혀졌던 한국의 주체적 문화를 찾아 뒤아 달아 다시 제 것으로 만들려는 창조적 문화활동의 국민적 기반이 차츰 닦여지려는 시기가 60년대초였다고 믿어진다.

한국사학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日帝시에 문화운동의 주역을 담당하던 진단학회가 1959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5년사 (1981. 서울) p. 44.

4) 韓國思想 講座 1. 2. 1958 (고구려문화사, 서울) pp. 5-6.

5) 韓國思想 第11집, 1974 (한국사상 연구회) p. 213.

6) 韓國의 發見, 現代人講座. 제 7 별권, 1962 (博友社, 서울)

년부터 1965년에 걸쳐 〈한국사〉 7책을 냈고, 1964년에서 1972년에 걸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한국문화사대계〉 7책, 또 국사편찬위원회도 1973년에서 78년에 걸쳐 〈한국사〉 24책을 내었다.

한국고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다음 절에서 한국고전의 형성에 기여한 실학운동과 가까이는 日帝下의 문화운동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론하겠다. 20세기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 사상형태를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활동이던 민족주의의 직접적 간접적 표현이오, 그 선구자, 추진자, 활동가들은 약간의 문필가를 제외한 사학자들이라고 말해야 하겠다.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고전의 출판현황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는 83년까지 도합 28종 164책의 고전국역총서를 간행한다. 1970년 당시 정부측 문화공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故박종홍교수는 민족문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경제체제도近代化도 그 모두가 민족부흥을 위하여 부과된 일이다. 그러나 열빠진 맹목적 추종이 부흥도 아니려니와 문화적인 가치의식을 결여한다면 경제의 성장도 올바른 근대화도 달성키 힘들 것이다. 민족문화가 양양·추진될 때 스스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요, 권하지 않아도 동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웅치기를 자원할 것이다. 東亞에 있어서 나아가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主體性을 확보·발휘하는 길은 민족문화의 추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⁷⁾

우리고전읽기 프로그램을 독려하는 1983년 〈민족문화문고간행회〉의 선전문은 ‘우리 문화를 되살려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려운 한문문화를 한글문화로 바꾸고, 전통문화를 현대문화로 연결시키며, 양반문화를 국민문화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한글—현대—국민과 한문—전통—양반의 대비가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국고전(한문으로 쓰여진)의 국역사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민족문화의 추진이 고전국역에 그쳐서는 안되지만 60년대의 민족적 주체의식의 자각이 정치적으로는 4.19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맞음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숨길 수 없다.

대학가에도 차츰 한국고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안내책자가 나온다.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1968년에 내어놓은 〈대학생을 위한 교양도서〉 108권 가운데 약 20% 정도는 반드시 고전은 아니더라도 한국관계서적을 손꼽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문학·예술·자연과학의 4분야에 포함된 한국관계교양도서를 일별해보자.

〈인문사회과학〉 한국사신론, 한국과학기술사, 한국의 인간상, 한국인의 성격, 三國史記, 三國遺事, 退溪全書, 栗谷全書, 热河日記, 西遊見聞, 우리말 八萬大藏經

7) ‘民族文化의 意義’ 朴鍾鴻全集 제 6권 pp. 77-78. 〈한국사상의 방향〉 안에 들어있는 哲學的小論이나 최초로 수록된 곳은 고전국역총서, 서울, 1970이다.

〈文學〉國文學全史, 時調文學事典, 春香傳, 血의 況, 喬

〈藝術〉韓國美術文化史論叢, 韓國書藝史, 國樂概要

⁸⁾ 〈自然科學〉 부문 19卷 가운데 한국인에 의한 한국과학에 관한 서적은 한권도 없다.

다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교양물 안내책자를 발간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그 영향은 곧바로 일반교양 월간지 *신동아*의 <한국의 고전백선>이란 1969년 1월호 별책부록으로 나타난다. 동아일보사가 100여명의 한국학자들을 동원하여 정선집필했다는 민족사상의 큰 흐름은 같은 해 9월 玄岩社란 민간출판사가 <한국의 명저>란 이름으로 보완·출판하여 80년대 말까지도 계속 한국고전의 전승과 혁명에 절대적 역할력을 행사하고 있다.⁹⁾

전통이란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다(The process of tradition is that of selection). 간단한 저자소개나 원문의 부분 인용번역소개에 만족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한국출판계는 70년대에 들어서 두 가지 한국고전관계全集物을 출판했다. 그 하나는 大洋書籍이 1972년에 내놓은 43著者, 36卷 한 秩의 〈韓國名著大全集〉이요, 또 하나는 同和出版社가 72년, 77년 두차례에 내놓은 각기 12卷씩, 24卷의 〈韓國의 思想大全集〉이다. 그 밖에 모도한 출판사치고 각종 문고본 속에 한국고전 몇권에서 몇십권을 집어넣지 않은 출판사가 드물다.¹⁰⁾

8) 대학생을 위한 교양도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68. 초판 1969, 재판).

9) 한국의 명저 (玄岩社, 서울, 1969. 9. 15. 초판. 1973. 10. 1. 4판) 신동아 별책 한국의 고전백선은 1876년 丙子修好條約 時를 편의상 下限으로 하여 결정된 書目이므로, 한국의 명저는 이에 1901년에 刊行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을 비롯 李光洙의 無情 等 11卷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10) 李奉宰君이 調査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고전백선을 軸으로 하여, 그 前後로 출판된 한국고전판
계 총서, 全集, 文庫本의 본포도는 아래 도표에 보이는 것과 같다(도표 I 참조).

〈도표 I〉

한국의 古典 百選 (동아일보)	한국고전 국역총서 (민족문화 추진회)	사상 전집 (同和)	名 전 (大洋)	著 집 (文)	박 영 문고	한 사 (三省)	국 상 (文)	三中堂 문고	서문 고	율유 문고	탕구 당	현암 신서	세종 문고	정음 문고
元曉, 金剛三昧經論		(금강삼 대경론) (대승기 신론소)	▽		▽		유심안 락도▽							
義湘, 華嚴乘法界圖		▽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									
知訥, 修心訣						▽								
慧謹, 禪門拈頌						▽								
休靜, 禪家龜鑑					▽	▽								
白坡, 白坡集					▽	▽								
鄭鑑錄					▽	▽								
李晚采, 關衛編					▽	▽				▽				
崔濟愚, 東經大全					▽	▽								
一 역사편														
慧超, 往五天竺國傳°			▽	▽		▽								
金富軾, 三國史記			▽	▽		▽		▽						
一然, 三國遺事			▽	▽		▽		▽						
覺訓, 海東高僧傳			▽	▽		▽		▽						
김종서, 고려사 정인지, 정인지	(고려사점 요)	▽	▽	▽		▽		▽		▽				
조선왕조실록			▽	▽		▽		▽		▽				
유성룡, 장비록			▽	▽		▽		▽		▽				
이순신, 李忠武公全書			▽	▽		▽		▽		▽				
大東野乘			▽	▽		▽		▽		▽				
李肯翊, 燃藜室記述						▽		▽						
安鼎福, 동사강목						▽		▽						
柳得恭, 渤海考						▽		▽						
韓致齋, 海東釋史						▽		▽						
金正喜, 金石過眼錄						▽		▽						
一 사회편														
정도전, 조선경국전		▽												
趙斗淳, 大典會通														
李珥, 聖學輯要								▽						▽
유형원, 반계수록								▽						
金桔南, 通文館志								▽						
洪大容, 漵軒書								▽						
朴一源, 秋官志								▽						
具宅奎, 增補無冤錄								▽						
朴齊家, 度支志								▽						
沈象圭, 北學譏								▽						
徐榮輔, 萬機要覽		▽						▽						

한국의 古典 百選 (동아일보)	한국고전 국역총서 (민족문화 추진회)	사전 (同和)	상집 (同和)	名전 (大洋)	著집 (大洋)	바영 문고	한국 사상 (三省)	三中堂 문고	서문 문고	율유 문고	당구 당신서	현암 현암	세종 문고	정음 문고
정약용, 경제유표 복민심서		∨			∨		경세 유표 ∨			∨		∨	복민 ∨	
李絳, 四禮便覽 成宗命編, 國朝五禮儀 中宗命撰, 동국여지승람 鄭尚驥, 동국지도 이중환, 택리지 김경호, 청구도, 大東地 志, 대동여지도				∨				∨						
—언어 世宗御製, 훈민정음 世宗命撰, 동국정운 申景濬, 訓民正音韻解 老乞大 柳傳, 諺文志														
一兵學 김종서, 制勝方略 正祖命撰, 武藝圖譜通志														
一자연편 世宗命撰, 鄉藥集成方 世宗命撰, 醫方類聚 許浚, 동의보감 李濟馬, 東醫壽世俟元 申渾, 農家集成 洪萬選, 산림경제 丁若銓, 紹山魚譜 成周眞, 書雲觀志 徐有栗, 林園十六志														
—문학·예술편 崔致遠, 桂苑筆耕												경학 장대 ∨		
李齊賢, 益齋集												득옹 매설 ∨		
金宗直, 佔畢齋集 朴祥, 訥齋集 李廷龜, 月沙集 張維, 翰谷集 李植, 泽堂集 金昌協, 農巖集				∨							—만필 ∨			

손쉽게 사볼 수 있는 卷當 8백권의 三星文化文庫는 1983년 11월 현재 178권을 내고 있는 데, 그 가운데 28권이 한국관계 특히 한국사관계서적들이다. 東西 3천년의 고전을 망라했다는 乙酉文化社의 新裝本 〈世界思想全集〉 36卷 속에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들어 있다. 한국고전이 한국민족문화란 맥락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의 고전 속에 당당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36卷 속에 두세권이란 비중이 하찮은 것이라고 웃어넘길 사람은 1983년 9월 독서의 계절을 맞은 「한국출판판매」의 양서읽히기 겸 판촉운동의 하나로 각계인사 74명의 추천을 받은 〈세계의 고전 1백권〉의 목록을 보아야 한다. 〈論語〉를 비롯한 동양고전 32권에 〈세익스피어全集〉을 비롯한 서양고전 35권에 앞서, 33卷의 한국 고전을 나열한 목록을 최다추천 순위대로 일렬하자.

한국의 古典 百選 (동아일보)	한국고전 국역총서 (민족문화 주진회)	사 상 집 (同和)	名 著 집 (大洋)	박영 문고	한 국 사 (三省)	三中堂 문고	서문 문고	율유 문고	탕구 당신서	현암 문고	세종 문고	정음 문고
박지원, 열하일기 洪寅周, 淵泉集 申緯, 紫霞詩集 徐居正, 東文選	▽		▽	소설 정선 ▽	▽				▽		도강록 ▽	
—국문학 용비어천가 수양대군, 月印釋譜 김시습, 금오신화 정철, 송강가사 윤선도, 孤山遺稿 허균, 흥길동전 춘향전 홍부전 김천택, 青丘永言 김만중, 九雲夢 혜경궁洪氏, 閑中錄			▽ ▽ ▽ ▽ ▽ ▽ ▽ ▽ ▽ ▽ ▽ ▽ ▽	(해동 야언) ▽				▽ 문선 ▽	사씨남 정기 ▽			
—음악 成 倪, 악학궤범 徐命膺, 大樂前後譜			▽									
—類書類 권문해, 大東韻府群玉 李晦光, 芝峯類說 李濱, 星湖僅說 李萬運, 增補文獻備考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	▽			▽ ▽			

1. 牧民心書, 2. 三國遺事, 3. 三國史記, 4. 栗谷全書, 5. 亂中日記, 6. 热河日記,
7. 松江歌辭, 8. 高麗史, 9. 金剛三昧經論, 10. 金鰲新話, 11. 東文選, 12. 磻溪隨錄,
13. 童蒙先習, 14. 懲毖錄, 15. 往五天竺國傳, 16. 東國輿地勝覽, 17. 孤山遺稿,
18. 春香傳, 19. 秋史文集, 20. 星湖僊說, 21. 茲峯類說, 22. 訓民正音, 23. 禪家龜鑑,
24. 洪吉童傳, 25. 青丘永言, 26. 東醫寶鑑, 27. 桂苑筆耕, 28. 龍飛御天歌, 29. 退溪全書, 30. 戒女書, 31. 閑中錄, 32. 擇里誌, 33. 燃藜室記述.

더우기 오늘의 책 선정협의회에서 83년 5월까지 8개월동안 출간된 신간도서 가운데 학문적 연구성과, 현대인의 의식 및 교양에 도움이 된다는 두 가지 기준으로 뽑은 39권의 오늘의 책에는 22권이 한국에 관련된 책들이다.

1. 조선 前期 사회경제연구 (한영우)
2. 고려 귀족사회와 노비 (홍승기)
3.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정두희)
4. 한국 문화전통론 (김철준)
5. 한국 문양사 (임영주)
6. 한국의 초상화 (조선미)
7. 한국 근대서양문화移入史 연구 (김병철)
8. 한국 神學의 鎏脈 (류동식)
9. 한글 궁체 연구 (박명천)
10. 한국 정치발전론 (한정일)
11. 國土와 民衆 (박태순)
12. 한국의 발전(1—11卷 여행안내서)¹¹⁾

1984년 금년들어 월간〈신동아〉는 역사를 움직인 백권의 철학책 속에 서양·동양편에 이어 13권의 한국철학고전을 집어넣었다.¹²⁾ 한국고전이 이미 한국에서만의 고전이기에는 아

11) 조선일보, 1983. 9. 8日字 문화면.

12) 新東亞, 1984년 1월로 별책부록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철학책에는 다음과 같은 13권의 한국철학자의 저술이 소개되어 있다.

1. 元曉의 「大乘起信論疏別記」
2. 圓測의 「般若心經贊」
3. 諦觀의 「天台四教儀」
4. 知納의 「勸修定慧結衣文」(1190)
5. 徐敬德의 「花潭集」(1489)
6. 李滉의 「聖學十圖」(1568)
7. 李珥의 「聖學輯要」(1575)
8. 休靜의 「禪家龜鑑」(1590)
9. 朴世堂의 「思辨錄」
10. 韓元震의 「朱子言論同異攷」(1725)

깝다. 아니 범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자각이 찍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의 민족적 주체의식의 자각을 본지 20년만에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역량은 한국·한국인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보다 보편적 인간문화일반으로 비상할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과장이 있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한국의 겉모습을 보기로 편한다. 이처럼 억세게 자라나는 한민족의 활동은 한국이라는 또는 민족이라는 협상을 넓히고 겉가죽을 뚫고 깊이 들어가는 집요함으로 세계의 문화인 대열에 들어서려는 안간힘이다. 정치·군사적 독립의 확립과 경제·사회적 안정 위에 문화·학예적 창조를 거의 한세대안에 이룩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 지금 한민족 전체가 취하는 엄청난 모습이다. 어느 한 분야도 거미줄이나 헛줄처럼 엉긴 사회구조 속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고전의 현재 모습을 통찰할 때 지난 30여년간의 궤적을 그려보임으로써 그 전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일단 60년대 이후 한민족의 자각 위에 이루어진 한국고전형성에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본 다음 그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 들어가자.

첫째, 문화적으로는 한글세대의 國風이라는 열기에 힘입어 한국고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그 國風을 음으로 양으로 주도한 학자들, 즉 이 문화운동의 주역인 창조적 소수는 대부분 사학을 전공했거나 역사에 관심 있는 문인·학자들이다. 예컨대 한국의 고전 백권을 뽑은 한국학자들 가운데 36명이 한국사전공이요, 25명이 국어국문학, 18명이 철학전공이라는 분포를 유념해 보라.

셋째, 위의 사학자들의 사상적 태두리는 민족주의라는 마력을 지닌 이념이다.

넷째, 한국고전은 대부분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소위 고전국역사업이 한국출판계 및 문화계 일반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가지 특징들은 해방이후 한국고전의 현황을 표피적으로 살펴 본 데서 일어난 지극히 피상적 관찰의 일부분임에 불과하지만, 이제 보다 깊이 한국고전의 뿌리를 그 형성과정의 묘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단이 앞으로 사회학적 조사 내지 문헌섭렵에 의한 서지학적 조사로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역사적 탐구로 쪽점을 돌려야 하겠다.

<계속>

-
11. 丁若鏞의 「論語古今註」(1813)
 12. 崔漢綺의 「人政」(1860)
 13. 龍…의 「黨海日輪」(1930)

Abstract**A Guide to Classics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I. Introduction****Tae-Kil Kim**

Most widely read books in Korea today are either those for leisure and scintillating interest or those practical manuals for entrance and official examinations, while those classical works emphasizing character formation and liberal education are neglected. In view of the above fact, we are of the opinion that more classics written by great authors in both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should be read for the promotion of liberal education.

We believe translation into readable modern Korean and publication of selected classics recommendable for Korean youths,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must precede to any hasty "spoon-feeding" indoctrination of liberal ideas. As a first step we have attempted to provide a reliable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classics suitable to college students in modern Korea.

We have agreed upon one of the most basic criteria for the selection: most precious book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re those that would give them "power of wisdom" living in this modern world. Accordingly, we have selected some books among the Korean, Chinese, Indian and Western classics which are obligatory and prerequisite readings for any Korean student today.

II. Formation of the Korean Classics.**Jae-Ryoung Shim**

Korean classics sound strange, for they contain unconditional truths represented by classics and local limitation conditioned by Korea.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reality that modern Koreans are not hesitant to use the term "Korean classics."

Hence, I have traced some historic origins of the formation of the idea "Korean classics." Although the use of the term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coupled with the rise of the modern nationalism, I have been able to locate a well established tradition of

Korean classics firmly rooted into the fertile ground of *Sirhak* Neo-Confucian movement during the late Yi Choson dynasty. Then the academic enthusiasm of *Sirhak* scholars was inherited by the so-called *Kaehwapa* or Korean Enlightenment scholars such as Ch'oe Nam-sōn, Yi Nŭng-hwa, and Chōng In-bo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ponse to the impact of the Japanese colonial expansion.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new meaning of "Sirhak"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lassic tradition are simultaneously achieved during the 1930's. The vigorous publication and promotion of Korean Classical works by various publishers and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1960's and onward are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attempt to identify Korean cultural achievements in the face of the oncoming age of pluralistic universalism.

A note of warning is added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to select Korean classic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Korean youths today so that they may become truly educated social beings: Another addendum is a list of Buddhist classics in India, China and Korea.

III. Chinese Classics

Hak-chu Kim

This is a preliminary attempt to probe the problem of what among the Chinese books can be ranked as "Classics" for basic readings suitable to Korean students today.

I have surveyed those Chinese books readily available in Korea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on Korean in order to ascertain what books are favorably received by Koreans. Then I have carefully considered "Hundered Selections among Chinese Classics" published by *Shin-dong-a* monthly magazine as a special separate volume added to January, 1980 edition and some other basic texts of Sinology selected by Chinese scholars.

On the basic of the survey and consideration, I have selected important Chinese classic most appropriate for us and classified them into literature, thought and social ideas. I have consistently kept the principle of selection, i.e.,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Furthermore I have emphasized more on the futuristic significance on Korean culture and educating Korean youths than on their past influence on us.

Finally, I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those works selected. General problematics are considered first and specific idiosyncrasies of each particular book are probed in turn.

IV. Classics of the West

Hee-Jin Park

The idea that liber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that everybody ought to have, and that the best way to a liberal education is through the greatest works men have produced, is still the best educational idea. These books shed some light on all our basic problems, and that is folly to do without any light we can get.

But with economic growth, liberal education has tended to be neglected all over the world. In Korea, because of the tremendous premium she has been placing on the need for rapid economic growth, it is more neglected than in any other country. We might even say that liberal education has virtually disappeared in our country. We regard this disappearance as an aberration, and not as an indication of progress. We do not look upon this disappearance as a benefit to be thankful for, but as an error that should be corrected.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recapture and re-emphasize and bring to bear upon its present problems the wisdom that lies in the works of the greatest thinkers. They may help us to learn to live better.

I tried to choose the most important voices in the classics of the West for Korean students, which would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them.